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이 현 석 지도교수
석사학위 청구논문

우리나라 금융상품의 종류와
특징에 관한 연구

2010

성신여자대학교 금융정보대학원

금융·보험전공

김 혜 진

우리나라 금융상품의 종류와
특징에 관한 연구

이 현 석 지도교수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0년 5월

성신여자대학교 금융정보대학원

금융·보험전공

김 혜 진

인 준 서

김혜진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심사위원 _____인

심사위원 _____인

심사위원 _____인

성신여자대학교 금융정보대학원

논문개요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중인 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통합법 또는 자통법으로 불림)의 제정됨에 따라 금융기관 업무영역에 대해서는 은행업·증권업·보험업을 3대 축으로 유지하면서 핵심 업무 이외의 주변업무를 중심으로 직접경영의 폭을 점차 확대하였다.

영업 관련 규제 완화와 소비자보호 관련 업무행위 규제 강화를 핵심으로 하는 금융규제 체계 개혁은 금융회사들이 칸막이 식 영업 관행에서 벗어나 무한경쟁을 하도록 유도하고, 또한 자본시장 중심으로 상품 개발 및 자산운용이 이루어지고, 고객 중심의 마케팅과 금융권간 판매채널 통합으로 향후 금융 회사 간 경쟁에서 우위를 결정하는 요소가 변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시장과 금융상품은 크게는 경제제도와 글로벌 환경, 작게는 금리, 수익률, 환율 등에 따라 영향을 받으며 규모와 선호가 변화하고 있다. 제도적 개편으로 소비자들은 그 수요에 따라 다양한 금융 상품을 보다 쉽게 접할 수 있게 되었고 소비자 스스로가 금융상품에 대한 특징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 분류기준에 의해 주요 금융시장과 하부 시장, 현재 거래되는 금융상품의 종류를 정리해보고 최근 현황 등을 알아본다. 또한 현재 판매되고 있는 금융상품들의 특징을 통해 향후 금융시장 동향을 예상해보고 전망 있는 금융상품을 추천해 본다.

목 차

논문 개요

I. 서론

II. 금융시장과 금융상품

제 1편 우리나라 금융시장과 금융상품

제 1장 단기금융시장

제 1절 화폐시장

제 2절 은행금융시장

제 3절 자산운용시장

제 2장 비은행 금융시장

제 1절 보험 및 연금시장

제 3장 자본시장

제 1절 주식시장

제 2절 채권시장

제 3절 자산유동화증권

제 4장 파생금융시장

제 1절 파생상품시장

제 2절 장내 파생상품

제 3절 장외 파생상품

제 5장 신종결합상품

제 2편 금융시장의 분석과 전망

제 6장 금융시장의 분석

제 7장 향후 금융시장의 전망

Ⅲ. 결 론

참고문헌

ABSTRACT

I. 서 론

2009년 2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 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통합법 또는 자
통법으로 불림)이 제정됨에 따라 금융기관 업무영역에 대해서는 은행업·증
권업·보험업을 3대 축으로 유지하면서 핵심 업무 이외의 주변업무를 중심
으로 직접결영의 폭을 점차 확대하였다. 칸막이 방식으로 운영되었던 영업
방식에서 벗어남에 따라 각 금융시장 간 연관성이 증가하고 상품 선호의 이
동도 보다 자유로워졌다.

이에 금융기관 별 상품을 분류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판단하여 한국은행
분류기준에 따라 현재 거래되는 금융상품의 종류를 정리해보고 최근 현황
등을 알아본다. 또한 현재 판매되고 있는 금융상품들의 특징이나 과거 추이
를 통해 향후 전망 있는 금융상품에 대해서 전망해본다.

한국은행 분류에 따르면 화폐시장, 은행시장, 자산운용시장을 포괄하는 단
기금융시장과 여신전문금융시장, 종합금융시장, 보험 및 연금시장을 포괄하
는 비은행 금융시장, 주식, 채권을 포괄하는 자본시장, 외환 및 국제 금융시
장과 파생금융시장으로 분류되는데 본 논문에서는 단기금융시장, 보험과 연
금시장을 위주로 한 비은행 금융시장, 자본시장, 파생금융시장을 위주로 다
루었다.

시중에 각 협회, 기관, 해당 금융 기관 등 방대한 자료가 존재, 이를 취합
하여 각 시장 전반에 관한 설명과 동향, 상품의 기본개념과 구조, 거래 현
황, 상품의 종류 등으로 요약 정리하였으며 중복된 상품은 상품명만 기재하
고 설명은 생략하였다.

Ⅱ . 금융시장과 금융상품

제 1편 우리나라 금융시장과 금융상품

제 1장 단기금융시장

단기금융시장은 단기자금의 수요자와 공급자간 수급불균형을 조절하기 위하여 통상 만기 1년 이내의 금융상품이 거래되는 시장이다. 1970년대 초 은행간 콜시장으로 시작하여 CD, RP, CP 등이 도입, 완전경쟁거래방식을 도입하기에 이르렀다. 주로 정부, 금융기관, 우량 기업 등 자금 거래 규모가 크고 신용도가 높은 거래자들이 일시적인 자금과부족을 조절하는 시장으로 도매시장의 성격이 강하다. 공개시장거래방식을 취하며 거래 및 결제방식이 비교적 간편하다. 2009년 단기금융시장 규모를 살펴보면 12월 말 기준 809.5조원 전년 말 대비 15.2%증가했다. 단기금융시장은 단기의 화폐시장과 일반은행금융시장, 자산운용 신탁 등이 포함된다[1].

제1절 화폐시장

화폐시장은 가장 전통적인 금융시장으로서 만기 1년 이내의 화폐자산이 거래되는 시장으로 정부, 공공단체, 비금융기업 등 자금부족 집단에게 단기자금을 대여하고 금융기관 및 비금융기관 등 자금 잉여 집단이 이들 거래를 통해서 수익을 올리는 금융시장이다. 화폐시장은 참여 기관들 간에 또는 주요 고객들 간에 전화를 통해 자금수급이 청산되는 점두거래(over-the-counter market : OTC)의 형태로 이루어진다. 미국의 경우 은행간 시장, 정부증권시장, CP, CD 등 민간증권시장이 균형 있게 발달되어 있다. 단기시장

인 화폐시장에서 거래되는 화폐자산으로는 주로 콜자금, CP, CD, RP, MMDA, CMA 등이 있다[2].

화폐시장의 상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콜(call)

콜(call)이란 주로 금융기관 간에 단기 유통하는 거액자금 콜론(call loan), 콜자금(call money)의 약칭이다. 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이 고객으로부터 예금을 받고 대출, 투자하는 과정에서의 일시적 자금과부족을 콜시장에서 금융기관 간 초단기 자금거래를 통해 자금의 수급을 조절한다. 만기는 30일 이내이며 1일물이 주를 이루고 대출한 자금을 회수 시에는 콜금리(call rate)를 붙여 회수한다. 참가기관으로는 일반은행, 특수은행, 종합금융회사 등이 있으며 한국자금중개주식회사가 중개, 금융기관끼리 직거래하기도 한다[3]. 2009년 평균 거래금액은 125,293,500(백만원), 일평균 결제량은 561,122건으로 전년 대비 감소하였다.¹⁾

2. 양도성 예금증서(CD : Certificate of Deposit)

은행이 정기예금에 양도성을 부여하여 발행한 정기예금증서를 말하는 것으로 무기명 할인식으로 발행되고 자유로운 양도가 가능하다. CD제도는 금리 자유화와 함께 크게 활성화되었다. 취급기관으로는 은행, 종합금융회사, 증권회사 등이며 실세금리 연동형 확정금리를 적용한다. 예치기간은 통상 30일 이상 1년 이내가 일반적이며 예치 한도에는 제한이 없다[4]. CD 발행규모를 보면 도입 이후 꾸준히 증가하다가 1997~98년 중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이는 은행이 취급하는 여타 단기금융시장상품인 표지어음이나 환매조건부채권매도와 달리 CD에 지급준비의무가 부과됨으로써 CD의 경쟁력이 상대적

1) 한국은행, 통화금융, 상품별구성내역

으로 저하된 데다 금융·외환위기 이후 기업의 신용위험 증가에 대응하여 은행이 자금운용에 신중한 자세를 보이면서 단기 고금리상품을 통한 자금조달에 소극적이었기 때문이다. 2010년 1/4분기 평균 86,826.1(십억원)거래되었다[5]. 최근에는 예대율 규제도입으로 인해 발행규모가 급격히 감소하였다.

3. 기업어음(CP : Commercial Paper)

기업어음은 일정 신용등급 이상의 상장적격 기업체가 자금유통을 위하여 발행한 단기어음으로 담보 없이 신용(무보증)으로 발행되며, 종합금융 회사가 할인 매입한 후 이를 기관이나 일반 투자자에게 다시 매출하는 단기 상품이다. 1981년 기업의 단기자금 조달을 쉽게 하기 위해 새로이 도입되었다. 취급기간은 증권사, 종금사이며 투자금액은 제한 없으며 예치기간은 1년 이내, 실세금리 연동형 확정금리를 적용한다. 이자는 할인 매출 또는 만기에 이자를 원금에 가산하여 복리로 계산한다[6]. 2010년 1분기 기준 45,526.4(십억원)발행되었으며, 유통수익률은 월 평균 3.03%이다.²⁾ 공사나 기업 발행자에게 외부자금을 싸게 조달하는 투자유인을 제공하여 발행이 증가하고 있다.

4. 환매조건부 채권 (RP : Repurchasing Agreement)

환매조건부채권은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국공채 등 채권을 고객이 매입하거나 고객으로부터 매도하고 일정기간 경과 후에 이자를 가산하여 일정한 가격으로 동일채권을 다시 매도하거나 매수할 것을 조건으로 한 채권이다. RP는 1981년 미국 예금금융기관들이 증권회사에 대한 자금조달상의 열세를 만회하고자 개발한 금융상품이다. 취급기간은 은행, 종금사, 증권회사, 증권금융회사, 우체국 등이 취급할 수 있으며 대상증권은 국채, 지방채, 특

2) 한국은행, 통화금융, 상품별구성내역

수채, 상장법인 및 등록법인이 발행하는 채권으로 이고 투자수익률은 가입 당시 약정이율로 확정한다[7]. 2010년 1/4분기 평균18,338.6(십억원) 거래되었다.³⁾

5. 통화안정증권시장(MSB : Monetary Stabilization Bond)

통화안정증권(Monetary Stabilization Bond)시장은 한국은행이 통화량을 조절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이 일반 또는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발행하는 단기 증권이다. 일반은행의 유휴자금 흡수 및 금리보조의 목적으로 1961년 최초로 발행된 이래 주로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발행되어 왔다. 현행 발행한도는 총통화(M2)의 25% 이내로 만기는 만기 14일부터 546일 까지 10종이 발행(364일물이 대중), 이율은 한국은행총재가 결정한다. 액면금액은 5종류로 정형화(백만원, 오백만원, 천만원, 오천만원, 1억원)되어 있으며 이자지급은 2년 물은 3개월마다 지급, 그 외 예는 선이자지급 형식의 할인 발행한다[8]. 최근에 국제수지흑자기조로 해외부문 통화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이를 흡수하기 위한 수단으로 크게 확대되었다. 2010년 4월 기준 발행액 27,340.0(십억원), 잔액은 165,050.0(십억원) 이다.⁴⁾

6. 수시입출금식 저축성예금 (MMDA : Money Market Deposit Account)

은행의 수시입출 및 결제기능을 가진 요구불 예금에 시장금리를 지급하는 예금이다. 1997년 7월 요구불 예금에 대한 수신금리가 자유화되면서 처음 실시한 상품으로 시장 실세금리에 의한 고금리가 적용되고 수시입출 및 각종 이체 및 결제기능이 가능한 단기 상품이다. 실적배당상품과 같이 변동된 시장금리를 지급하며 일반적으로 특정증권의 수익률이나 특정지수에 연계된

3) 한국은행, 통화금융, 상품별구성내역

4) 한국은행, 주요계정, 통화안정증권발행

다. 취급기관은 투자신탁회사에서 주로 취급하나 은행에서도 유사한 성격의 상품이 있다[9]. 가입대상과 기간에는 제한이 없으나 법인은 가입기간을 7일 이내로 제한하며 통상 예금 잔액 기준으로 금액별로 차등금리를 지급한다.⁵⁾ 2010년 1/4분기 기준 259,094.7(십억원)거래되었으며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이다. 은행별 가장 높은 금리를 주는 개인 MMDA를 살펴보면 2010년 5월 18일 기준으로 SC제일은행의 ‘일복리 저축예금’이 1억 기준 2.00% 가장 높은 금리를 적용한다.⁶⁾

7. 어음관리계좌(CMA : Cash Management Account)

어음관리계좌는 화폐시장에 직접 참여하기가 어려운 일반고객을 위하여 종합금융회사가 다수의 고객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여 이 자금을 주로 기업어음 및 통화조절용 국공채 등 단기금융상품에 직접 투자하여 운용한 후 그 수익을 예탁기간에 따라 투자자에게 차등지급하는 단기 저축상품으로 현재 종합금융회사에서 취급하고 있다. 가입대상과 예탁금액에는 제한이 없으며 수시입출금이 허용되면서도 실세금리 수준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종금형 CMA에 한해 예금자 보호가 가능하다. 2009년 2/4분기에서 3/4분기 사이 전기대비 529%의 급격한 상승세를 보였으며 2010년 6월 3일 기준으로 총 계좌수 10,753,874건 계좌잔액은 41,486,446(백만원)거래되었다.⁷⁾

8. 신종 단기금융펀드(신종MMF : Money Market Fund)

투자신탁(운용)회사가 여러 고객이 투자한 자금을 모아 주로 양도성 예금

5) 금융투자교육원, 투자자산 운용사Ⅱ

6) 한국은행연합회. 예금금리비교

7) 한국은행, 통화금융, 상품별구성내역

증서(CD), 기업어음(CP), 만기 5년 이하의 국채 및 만기 2년 이하의 통화안정증권 등 금융자산에 투자하여 얻은 수익을 고객에게 배당하는 채권투자신탁 상품이다. 미국의 메릴린치 증권에서 개발한 상품으로 우리나라에서는 1996년부터 투신사에서 판매되기 시작했다.⁸⁾ 고객의 입출금이 자유롭고 환매에 따른 수수료가 없기 때문에 단기금융상품의 대표상품이다. 최저 가입금액의 제한이 없고 환금성이 높은 데다 시중 실세금리 수준의 수익을 올릴 수 있어 소액 투자는 물론 언제 쓸지 모르는 단기자금을 운용하는데 유리한 수단이다. 가입대상자 및 가입한도, 저축기간에는 제한이 없으며 인출시의 운용실적에 따라 배당한다.⁹⁾ 2009년 2/4분기에서 3/4분기 큰 폭으로 감소했으나 전차 증가추세이며 2010년 1/4분기 기준 평균잔액은 55,651.0(십억원)이다.¹⁰⁾

9. 자산종합관리구좌 (wrap account)

종합자산관리 방식의 상품으로 여러 종류의 자산운용관련 상품들을 하나로 묶어 고객의 기호에 맞게 제공하는 자산종합관리 상품이다. 금융기관이 투자자에게 가장 적합한 포트폴리오에 관한 상담 결과에 따라 자산을 운용해 주거나 자산운용회사를 소개해 주고 대가로 일정비율의 수수료를 받는 상품이다. 1975년 미국 후튼(Hutton)증권에서 최초로 개발, 1980년대 말 미국시장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켰으며 우리나라에서는 2001년 2월 증권사들이 본격적으로 판매하기 시작, 2010년 기준 시장규모는 약 17조원에 달한다. 취급기관은 증권회사이며 가입대상과 저축기간에는 제한이 없다[10]. 2010년 3월 기준 계약건수 545,702건, 계약자산 21,923,835(백만원)으로 꾸준히 증가

8) 김병채, 미국증권금융시장의 신상품개발;Merrill Lynch CMA를 중심으로, 대한증권업협회, 1982

9) 금융투자교육원, 투자자산 운용사II

10) 한국은행, 통화금융, 상품별구성내역

추세이다.¹¹⁾

제2절 은행금융시장

전통적 금융시장 가운데 단기금융시장에서 화폐시장 다음으로 은행 금융시장이 중요한 위치에 있다. 이 시장에서 거래되는 은행상품은 크게 예금상품과 대출상품이 있다.

1. 예금시장

예금은 일반대중 또는 기업, 공공기관 등 불특정 다수의 예금고객으로부터 보관·운용을 위탁받은 자금이다. 예금은 은행이 영업을 영위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자금조달의 수단이 되며 실제로 규모에 있어서도 예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크다. 예금은 예입·인출이 자유롭고 따라서 이자가 없거나 저리의 이자를 받는 요구불 예금과 일정기간 동안 예치해둠으로써 보다 높은 이자를 받는 저축성 예금으로 구분되며 저축성예금은 입출금식, 적립식과 거치식으로 나눌 수 있다[11].

<표1> 예금의 분류¹²⁾

예금분류	상품명
요구불예금	보통예금, 당좌예금, 가계당좌예금, 별단예금, 공공예금
저축성 예금	입출금식 저축예금, MMDA
	적립식 가계우대정기적금, 장학적금, 주택청약부금,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정기적금, 상호부금, 장기주택마련저축
	거치식 CD, RP, 주택청약예금, 표지어음, 생계형 비과세저축 정기예금, 주가지수연동정기예금

11) 한국은행, 통화금융, 상품별구성내역

12) 은행연합회

(1)요구불예금(demand deposit)

요구불예금은 예금자의 인출요구가 있으면 즉시 반환하여야 하는 예금으로 예치 개시 초에 기간을 설정하지 않고 일시적으로 자금을 운용, 자금보관 또는 출납편의를 목적으로 예치할 때 사용하는 예금을 말한다. 요구불예금은 이자가 없거나 아주 미미한 수준이며 대표적인 통화성 예금으로 현금통화와 함께 통화량 지표 M1에 포함된다.¹³⁾ 전체 예금 중 요구불예금의 비중은 약10%, 2009년 말 잔액은 75,139.6(십억원)이며 요구불 예금 평균 금리는 2010년 1/4분기 기준 0.37%이다.¹⁴⁾

①보통예금

보통예금은 가장 일반적인 예금으로서 예입과 인출을 자유로이 할 수 있는 통장식 은행예금이다. 요구불 예금의 60%(47,129.1(십억원))¹⁵⁾이상을 차지하는 보통예금은 거래대상, 예치금액, 예치기간, 입출금 회수 등에 아무런 제한이 없어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는 예금으로서 당좌예금계정을 개설하지 않은 중소기업자의 출납예금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으며 연 0.25% 이내로 매우 낮은 이자가 지급된다.

②별단예금

환, 대출, 보관 등 은행의 업무 수행 상 발생하는 미결제, 미정리 자금 또는 타 예금 계정으로 취급할 수 없는 자금 등 일시적 보관금에 붙이는 편의적 계정명칭으로서 후일 다른 계정으로 대체되거나 지급될 예금, 편의적 계정을 말한다. 따라서 일정한 거래기한이나 거래약관은 없고 예금증서나 통장도 발행하지 않으며 사무 처리 중에 일시 예치하는 예금이므로 이자를 지

13) 한국은행, '우리나라의 금융제도'

14) 금융통계시스템, 금융통계월보

15) 금융통계시스템, 금융통계월보

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요구불 예금의 약 25%(20,089.1(십억원))정도를 차지하고 있다.¹⁶⁾

③당좌예금과 가계당좌예금

은행과 당좌거래계약을 체결한 거래처가 발행한 당좌수표 및 약속어음 또는 당좌계약자가 인수한 환어음의 지급을 은행에 위임하고자 개설하는 예금으로 상업 금융 업무를 영위하는 일반은행만이 원칙적으로 당좌예금을 취급할 수 있다. 일반당좌예금에는 이자를 부과하고 있지 않다. 가입대상은 신용상태가 양호한 개인으로 제한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자격기준은 각 은행이 자율적으로 정하고 있으며 대출한도도 예금가입자의 신용도 등을 감안하여 자율적으로 정하고 있다.

④공공예금

은행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금고업무를 취급예약에 의거 각종 공과금의 수납대행에 따라 보유되는 예금이다.

(2)저축성예금(saving deposits)

예치 개시 초에 예치 기간을 미리 정하고 기한도래 전에는 인출이 안 되는 대신, 기한에 따라 또는 특성에 따라 높은 이자가 지급되기도 하는 고수익 예금상품이다. 은행 예금 총 계정에 90%(630,059.7(십억원))가 저축성 예금계정이다. 순수저축성예금의 평균금리는 2010년 1/4분기 기준 3.39%이다.¹⁷⁾

①정기예금(time deposit)

예금자가 이자수취를 목적으로 예치기간을 사전에 약정하여 일정금액을 예입하는 기한부예금으로 가장 저축성이 강한 예금이다. 일반정기예금 이외에

16) 금융통계시스템, 금융통계월보

17) 금융통계시스템, 금융통계월보

특정목적을 위하여 예치하는 목적부정기예금으로는 주택청약예금이 있다. 정기예금은 은행뿐만 아니라 농·수협, 상호저축은행 그리고 우체국에서도 취급하며 가입대상 및 예치한도는 제한 없고 이자계산은 만기 지급식, 월이자 지급식으로 지급한다. 정기예금은 저축성 예금의 60%를 차지하며, 2009년 말 평균잔액은 377,843.6(십억원)이다.¹⁸⁾ 정기예금의 평균금리는 2010년 1/4분기 기준 3.94%이다.¹⁹⁾

②저축예금

저축예금은 가계저축 증대를 위하여 도입된 가계우대 예금제도의 하나로 입출금이 자유로운 결제성 예금이다. 일정금액 이상을 3개월 이상 예치 시 저축예금보다 높은 금리를 보장하는 자유저축 예금, 신 자유 저축예금도 판매되고 있다. 저축예금은 2009년 말 잔액 103,681.6(십억원)으로 총 저축성 예금의 16%를 차지하고 있다.²⁰⁾

③정기적금(installment savings deposit)

정기적금은 계약금액과 계약기간을 정하고 예금주가 일정금액을 정기적으로 납입하면 은행이 만기일에 계약금액을 지급하는 적립식 예금으로 펀돈을 모아 목돈을 마련하는 데 가장 보편적인 장기 저축성 예금이며, 일반정기적금은 가입대상 및 예치한도에 제한이 없으며 계약기간은 6개월 이상이다. 정기적금은 예금주가 일정기간(일반적으로 1/4회차 정도)납입하면 적금계약액 범위 내에서 대출도 가능하다.

④주택 관련 상품

주택 관련 적립식 예금으로는 장기주택마련저축, 청약부금,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장기주택 마련저축이 있다. 먼저 장기주택마련저축은 무주택

18) 금융통계시스템, 금융통계월보

19) 은행연합회, 예금금리비교

20) 금융통계시스템, 금융통계월보

자의 주택마련을 돕기 위한 장기 적립식 저축으로 만18세 이상의 세대주로서 무주택자 또는 국민주택 이하로서 가입당시 주택공시가액이 3억원 이하 1주택 소유자로 2006년, 가입대상이 축소되었다. 전 금융기관을 통해 중복가입이 가능하고 매 분기 만원 이상 300만원 이내의 금액을 적립식으로 예치, 저축기간은 7년 이상이다. 7년 이상 가입 시 비과세 혜택, 소득공제 혜택, 장기주택자금 대출 등의 특징이 있다.

청약부금,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장기주택 마련저축의 적립식 상품은 가입대상, 청약관련 내용 등이 조금씩 상이하나 대체는 무주택 세대주에게 국민주택 또는 민영주택을 청약할 수 있는 기회를 부과하는 것으로 소득공제혜택, 세금우대 혜택 등이 주어진다.

⑤생계형 비과세저축

2009년부터는 만 60세 이상의 개인, 장애인, 상이자, 생활보호대상자 등 저소득자의 생계안정을 위하여 도입한 1인당 3,000만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는 특별우대저축으로 만기제한 없이 금융기관에서 취급하는 저축인 신탁, 보험, 공제, 증권저축, 채권저축 등에 가입하면 된다. 전 금융기관 중복 가입가능하며 중도해지하거나 만기 후에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⑥주가지수연동 정기예금

은행에서 판매하는 주가지수 연계예금으로 예치한 자금 중 일부는 안전자산에 나머지는 파생상품 등에 투자해 추가수익을 노리는 금융상품이다. 보통 만기는 1년으로 안정형, 상승형, 하락형 세 종류가 있으며 원금 손실 가능성이 없는 게 특징이다. 중도 해지 시에는 고율의 수수료가 부과되며 예금자보호 대상이다. 2010년 2월 기준 발행금액 1,488,269(백만원)으로 최근 수익률 분석 결과 시중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의 2배에 가까운 수익률을 내면서 향후에도 그 규모가 증가 될 추세이다.

2. 대출시장

대출(loan)은 은행이 자금을 필요로 하는 차입자에게 약정기한인 만기(maturity)에 원리금(principal and interest)의 상환을 확정하고 필요자금을 일정조건하에 빌려(대부)주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이자는 매월마다 은행에 납부하도록 약정하며 이자체납의 경우에는 연체기간 동안 원금에 대해 일정 가산율의 연체이자율이 적용된다[12]. 대출의 종류에는 담보여부에 따라 담보대출과 신용대출로도 나눌 수 있다. 그 종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담보대출²¹⁾

은행이 고객으로부터 담보를 취득하고 그 범위 내에서 대출을 하는 것으로 은행 대출에서 가장 일반화되어 있다. 은행의 총여신 중 담보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50%에 달한다. 담보대출은 담보물에 따라 부동산담보대출, 예수금담보대출, 유가증권담보대출, 동산담보대출 등이 있다.

①부동산담보대출

부동산 담보대출은 은행이 대출의 담보조건을 부동산으로 하여 대출해 주는 것으로 취득한 부동산담보권은 법원의 등기에 의해 권리가 보전되고 그 가치의 평가와 담보물건의 관리가 비교적 용이하기 때문에 대출담보로서 가장 널리 활용되고 있으며 가장 일반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담보설정방식은 저당권, 가등기담보권, 양도담보권 등의 방식이다. 담보대출의 약 90%이상을 부동산 담보대출이 차지하고 있다.

②유가증권담보대출

유가증권담보대출(loan secured by securities)은 채무자가 은행(채권자)에서 금융을 받을 때 국공채, 회사채, 주식, 생명보험증서 등의 유가증권을 담

21)신한은행, 금융상품물, 대출

보로 제공하고 대출 받는 것을 말한다. 부동산담보대출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담보대출에서 유가증권담보대출이 차지하는 비율은 매우 미미하다고 볼 수 있다.

(2) 신용대출

담보, 보증인 없이 본인의 신용만으로 대출을 받는 것을 말한다. 신용대출 대사는 직업, 소득, 거래실적, 인적사항, 재산상태 등 다양한 기준에 의해 등급별로 구분되며 그에 따른 한도와 이율이 결정된다. 신용대출은 총 여신의 40%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3) 한국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모기지론)²²⁾

만 20세 이상 65세 이내로 본인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는 1세대 1주택이하 소유자를 대상으로 만기 20년, 15년, 10년, 1년의 거치기간 선택 가능하고 고정금리를 적용받는다. 중도상환 수수료가 있으며 분양가 기준 최고 70% 이내에서 3억원까지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다. 최근에는 부동산 시장 침체 영향으로 2010년 5월 기준 전달 대비 11.4%(2374억원) 공급실적이 감소됐다.

제3절 자산운용시장

자산운용시장은 은행신탁, 증권투자신탁, 부동산투자신탁 등 모든 금융자산의 관리 운용, 처분 등을 목적으로 거래되는 전문시장을 말한다.

1. 은행신탁

신탁이란 신탁 설정자(=위탁자, 고객)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수탁자, 신탁업자)가 특별한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위탁자(고객)가 특정의 재산권(=금전

²²⁾ 한국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또는 금전 이외 재산을 수탁자(신탁업자)에게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신탁업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수익자)의 이익을 위하여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 처분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하며 신탁은 위탁자(고객)와 수탁자(신탁업자) 간의 계약 또는 위탁자(고객)의 유언에 의하여 설정 할 수 있다. 은행 총자산에서 신탁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10%이다. 일반적으로 은행신탁은 인수하는 재산의 종류에 따라 금전을 수탁하는 금전신탁과 금전 이외의 재산을 수탁하는 재산신탁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13].

(1)금전신탁

신탁재산은 금전으로 수탁하여 운영하다가 만기 시에 금전으로 지급하여 주는 신탁형태를 금전신탁이라 한다. 금전신탁은 운용하는 특성에 따라 운용방법을 위탁자(고객)가 지정하는 방식특정금전신탁과 운용방법을 위탁자(고객)가 지정하지 않고 수탁자(신탁업자)에게 맡기는 방식인 불특정 금전신탁으로 나누어진다[14].

①특정금전신탁 (MMT : Money Market Trust)

고객별, 신탁계약 기간별 별도 펀드를 구성하여 관리· 운용하므로 고객의 투자성향, 투자기간, 투자금액 등에 따라 맞춤형 투자가 가능한 신탁 상품이다. 고객이 운용대상(주식, 채권, 부동산, 펀드 등), 운용방법, 운용조건 등을 지정하고 신탁업자는 고객이 지시한 대상물 편입하여 운용 후 실적배당 한다. 투자기간은 보통 3개월 이상으로 제한이 없다(취급 금융기관별 상이)[15].

(2) 재산신탁

재산신탁은 금전 이외의 재산인 증권, 금전채권, 동산, 부동산, 지상권, 전세권, 부동산임차권, 부동산소유권 이전청구권, 무체재산권 등으로 수탁하여 관리 및 운용하다가 만기 시에 수탁 받은 재산으로 교부하여 주는 신탁형태를 재산신탁이라 한다.(그러나 예외적으로 고객이 처분을 희망하여 금전형태로 있는 경우 금전으로 지급가능 함) 재산신탁은 수탁 받는 재산에 따라 여러 유형이 있으나 발생유형별로 크게 유가증권신탁, 금전채권신탁, 부동산신탁으로 나누어진다[16].

① 유가증권 신탁

고객소유의 유가증권을 신탁재산으로 수탁하여 유가증권의 보관, 이자배당금·상환금의 수령, 증자대금의 불입, 담보제공, 대여 등 유가증권을 관리, 처분운용하고 신탁종료 시 신탁원본 및 수익을 운용 현상대로 교부하는 재산신탁이다. 신탁기간은 신탁계약기간으로 정하며, 신탁기간 중 연장이 가능하다. 최저 신탁금액을 3억원 이상, 특징으로는 재산신탁, 단돈운용신탁, 실적배당 상품이다.

② 금전채권신탁

금전채권신탁은 위탁자(고객)가 보유하고 있는 양도 가능한 채권(채무의 반대 개념)을 신탁하여 위탁자의 자금조달과 추심, 관리, 처분 및 재무구조개선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이다. 위탁자(고객)는 금전채권 신탁계약 체결 후 신탁 업자에게 수익권증서 발행을 요구할 수 있으며 발행된 수익권증서를 수익자 또는 제 3자에게 양도 등을 통하여 채권이 변제될 때까지 회수할 수 없는 자금을 유동화 할 수 있다. 실적 배당형 상품으로 기간과 금액은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③부동산신탁

고객소유의 부동산을 수익자의 이익 또는 신탁계약에 정한 바에 따라 관리, 처분, 담보 및 개발을 목적으로 수탁 받아 운용하고 신탁 종료 시 그 운용상태로 교부하는 신탁으로 신탁재산에 따른 취득세, 등록세가 면제된다. 부동산 관리신탁, 부동산 처분신탁, 부동산 담보신탁, 토지신탁 등이 있다.

제 2장 비은행 금융시장

제 1절 보험 및 연금시장

1. 보험

보험(insurance)은 동종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다수의 사람들이 일정한 대가(보험료)를 지불하고 그 위험을 제 3자(보험회사)에게 전가하여 피해를 복구시켜주는 경제제도로 위험이전의 대표적인 방법이다. 현대 사회의 복잡성과 새로운 위험의 출현으로 인해 보험에 대한 분류는 다양하게 발전하였다. 현재 한국에서 시행되는 사회보험은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의료보험, 실업급여, 고용보험 등이 있다. 보험은 크게 생명보험(life insurance)과 손해보험(property and liability insurance)으로 구분할 수 있다[17].

2. 생명보험

생명보험계약은 보험자(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료를 받고 피보험자의 생사에 관하여 우연한 사고가 생길 경우에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험금액 또는 기타 일정한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고대의 장례비용 공동부담제도, 중세의 길드(Guild)조직으로부터 발생한 보

험제도는 영국에서 최초의 근대적 생명보험회사인 에퀴터블(Equitable)생명이 설립되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1921년에 조선 생명보험주식회사, 1922년의 조선회재해상보험주식회사(1922년)가 최초로 설립되었다.²³⁾ 2010년 2월 기준 말 보유계약은 75,199,870건, 보유 금액은 1,707,884,019(백만원)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²⁴⁾ 생명보험은 다양한 형태로 분류 가능하나 가입의 목적에 따라 보장성 보험과 저축성 보험으로 나눌 수 있으며 보장성 보험에는 종신보험과 변액종신보험, 정기보험, 질병보험 등이 있으며 저축성보험에는 연금보험, 변액 유니버설보험, 연금저축보험 등이 있다.

(1) 보장성보험

사망·상해·입원·생존 등과 같이 사람의 생명과 관련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보험자에게 약속된 급부금을 제공하는 보험 상품으로 연말 소득 정산 시 연간 1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²⁵⁾ 2010년 2월 기준 보장성 보험의 신계약이 271,749.9(십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2월 말 보유계약금액은 1,357,999.5(십억원)²⁶⁾으로 전달 대비 감소하였다.

①종신보험

피보험자의 일생 동안 사망의 원인과 시기에 상관없이 약정된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으로 전통적인 종신보험 형태로 가입당시 예정이율과 약정한 보험금이 피보험자 사망 시 까지 일정하게 유지되는 확정형 상품과 시중 실세금리 및 생명보험사의 자산수익률에 따라 준비금 적립이율이 일정기간

23) 생명보험협회.

24) 생명보험협회, 월간생명보험통계(2010.03)

25) 생명보험협회. 상품공시실

26) 생명보험협회, 월간생명보험통계(2010.03)

단위로 변동하는 금리 연동형 상품이 있다.²⁷⁾

② 변액종신보험

보험계약자들이 낸 보험료로 펀드를 구성하여 그 운용실적에 따라 사망보험금이 변동하는 ‘실적 배당형’ 종신보험으로 해약 시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예금자보호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²⁸⁾ 변액 종신보험은 2001년 7월 최초로 판매한 이후 지속적인 성장을 보여 왔다. 고객의 투자성향에 따라 자산운용 형태를 직접 선택할 수 있으며, 보험기간 중 수시로 펀드를 변경할 수도 있다. (변경횟수는 회사별상이,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다.)

③ 정기보험

일정 보험기간을 사망원인에 상관없이 약정된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으로 종신보험과 유사하나 보험 대상자(피보험자)의 생명에 대해 10년, 20년 등 일정 보장 기간만을 보장하는 상품으로 보험기간이 끝나면 보험계약이 종료된다. 원칙적으로 정기보험은 사망을 대비한 순수형으로 개발할 경우 보장기간이 종신인 종신보험에 비해 보험료가 저렴하다.²⁹⁾

④ 질병보험, 상해보험 등

암, 성인병 등 각종 질병으로 인한 진단비, 입원 수술비 등을 보장하는 질병보험, 교통재해 및 각종사고 발생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해보험 등이 있다. 생명보험회사가 판매하고 있는 상해보험은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재해 이외에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타인에게 상해 등을 입힌

27),11),12) 생명보험협회. 상품공시실

경우는 보장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2) 저축성보험

보장성 보험을 제외한 보험으로서 위험보장보다는 생존시의 저축기능을 강화한 상품으로 중, 단기에 목돈을 마련하거나, 노후를 대비할 목적으로 하는 상품이다.³⁰⁾ 2010년 2월 기준 보장성 보험의 신계약이 90,193.2(십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2월 말 보유계약금액은 343,715.2(십억원)³¹⁾으로 전달 대비 감소하였다. 연금보험, 변액 유니버설보험, 저축보험 등이 있다.

①연금보험

경제 활동기에 보험료를 납부하면, 은퇴 후 노후 생활자금을 정기적인 연금형태로 지급하는 상품으로 현재 우리나라에서 판매되고 있는 연금보험은 연금을 수령받기 이전 기간 즉, 연금재원을 축적하는 기간을 제 1보험기간으로 각종 재해나 질병 등에 대한 위험보장이 이루어지며, 연금을 지급받는 기간을 제 2보험기간이라고 한다. 연금지급 개시 전에 사망보험금, 장해연금 등 다양한 보장을 받을 수도 있다. 연금보험은 세제지원 여부에 따라 적격상품(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비적격 연금(일반연금)으로 분류할 수 있다.

②변액 유니버설 보험

보험의 보장기능, 펀드의 실적배당기능 및 예금의 자유입출금 기능을 결합한 종합 금융형 보험 상품으로 해약 시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예금자 보호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최저보증 사망보험금은 상품형태에 따라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데, 대표적인 형태로는 보장형의 경우 변

30) 생명보험협회, 상품공시실

31) 생명보험협회, 월간생명보험통계(2010.03)

액 중신보험과 같이 기본사망보험금을 최저 보증하는 형태와 가산형의 경우 기 납입보험료를 최저 보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18].

③저축보험

3년·5년 또는 10년 등 비교적 단기간의 저축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으로 보통은 결혼이나 독립자금·주택마련자금·사업자금·노후생활자금 등의 준비에 이용된다. 유니버설 보험, 장기주택마련보험 등이 있다.

3. 손해보험

손해보험계약은 피 보험자의 물건 또는 그 밖의 재산에 우연한 사고로 생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험자와 보험 계약자 사이에 맺어지는 계약으로 당사자의 한쪽 (보험계약자)이 약정한 보험료를 지급하고 상대방(보험자)이 보험의 목적에 대하여 생길 우연한 사고(보험사고)로 피보험자가 입을 재산상의 손해보상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보험(상법 제665조)이다. FY2010년 기준 손해보험사의 수입보험료는 498,561(억원), 성장률은 13.9%이다.

(1)손해보험 상품의 분류

①화재보험: 화재(폭발, 화염)로 인하여 보험의 목적물에 대해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②해상보험: 선박보험, 적하보험, 운송보험, 항공보험 등이 있다.

③특종보험: 상해보험, 배상책임보험, 도난보험, 기관·기계보험, 건설공사·조립보험, 정보화보험, 재산종합보험, 근로자 재해보장책임보험, 레저종합보험, 기타 특종보험으로 권원보험(Title Insurance), 유리보험, 동물보험, 원자력보험, 로봇종합보험, 인공위성발사보험, 전문직업인 배상책임보험 등이 있

다.

④자동차 보험 : 법에 의해 강제된 보험으로 사망 사고 시 피해자 1인당 보장금액은 사망 시 최고 1억원, 부상 시 최고 2,000만원, 후유 장애 시 최고 1억원인 책임보험(대인배상 I)과 임의보험으로 나눌 수 있다. FY2010년 기준 자동차보험의 원수보험료는 10,937,141(백만원), 전체 손해보험 중 약 25%를 차지한다.

⑤장기손해보험 : 장기손해보험은 보험기간이 3년 이상으로 장기간이며, 예기치 못한 불의의 사고에 대비할 수 있는 보장기능과 함께 만기 시에는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저축보험료 부분에 약정된 예정이율에 따른 이자를 더해 돌려드리는 저축기능을 겸한 보험 상품이다. FY2010년 기준 장기손해보험의 원수보험료는 18,886,963(백만원), 전체 손해보험의 50%이상은 장기보험이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 증가추세이다[19].

4. 연금시장

연금제도(annuity)란 소득생활자가 일정한 소득이 있는 기간 동안 국가 또는 소속 직장에서 운영하는 기금에 소득 중 일정액을 정기적으로 각출하여 퇴직 후 또는 미리정한 연령에 도달 한 후부터 일정한 금액을 정기적으로 수령하여 노후 생활의 안정을 기하고자 운영하는 제도를 말한다.³²⁾

연금제도는 연금 운영주체에 따라 크게 정부에서 노후의 최저 생활 보장을 위해 운영하는 공적연금제도, 기업에서 기업주가 근로자의 표준적인 생활보장을 위해 운영하는 기업연금제도, 개인이 풍요로운 노후를 위해 본인 스스로 준비하는 개인연금제도의 세 가지 형태로 나누어진다. 세 가지 제도를 통칭하여 ‘연금제도의 3층 구조’라 하며, 기업연금 및 개인연금 제도를 합해서 사적 연금제도라 한다.³³⁾

32) 이요섭, 『금융시장의 이해』(제 5판), 연암사, 2009

(1)개인연금

우리나라 개인연금제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 86조, 동법 시행령 제 80조, 동법 시행규칙 제 33조 등에 근거 규정을 두고 있다. 1994년 6월 20일부터 실시된 우리나라 개인연금제도의 주요 내용을 국민연금과 비교해 살펴보면 종전에 만20세 이상이었던 가입대상은 2001년 2월부터 판매한 개인연금부터 만 18세 이상으로 동일해졌다. 가입금액은 매회 1만원 이상, 가입한도는 최저 1만원 이상, 분기당 최대 300만원으로 월 100만원까지 불입이 가능하다. 불입기간은 10년 이상이며 55세 이후 5년 이상 연금으로 지급된다. 비과세, 매년 72만원까지 소득공제(2000. 12. 31이전 판매)되었으나 2001년 2월 가입부터 과세(세금우대), 매년 300만원까지 소득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중도해지 시에는 수수료가 부과된다.

(2)개인연금 취급기관별 상품

개인연금의 유형에는 보험형과 신탁형이 있다. 보험형은 연금 수령 기간을 생명표에 기초하여 종신으로 하였고, 반면에 은행이나 투자신탁의 신탁형 개인연금은 연금수혜자의 생사에 관계없이 일정한 기간 동안 연금을 수령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금융기관별 개인연금 상품의 특성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표 2> 금융기관별 개인연금 상품의 특성³⁴⁾

구분	은행	보험	투신
원본보장여부	원본보전	원리금보장	원본보전 없음
예금자보호	1인 5천만원	1인 5천만원	해당사항 없음

33) 금융투자교육원, 투자자산 운용사II

34) 자료 : 공개식 외, 『종합금융의 이해』, 문영사

운용 방식	실적배당 - 채권형(안정형)	확정금리형 금리 연동형	실적배당 -공사 채형, 주식형
연평균 수익률	12.92%	8.3%~12.88%	8.01%~10.52
사업비 (신탁보수)	1.2~1.5% 수준 *수탁 잔액기준	10~14% 수준 *납입보험료기준	1.0~2.0수준 *수탁 잔액기준
중도해지 수수료율 (환매 수수료율 및 해약환급금)	· 1년 미만 : 50%이상 · 2년 미만 : 30%이상 · 5년 미만 : 10% 이상 *신탁이익기준	일정년도 이전에 중도해지 시 해약공제로 인하여 해약환급금이 납입보험료보다 적게 됨	· 2년 미만 : 2% · 5년 미만 : 1% *이익금기준
기타	-	위험보장기능	

제 3장 자본시장

자본시장은 주로 기업, 정부 등 자금부족부문이 자금잉여부문으로부터 장기적으로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데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장기금융시장이라고도 부른다. 우리나라의 자본시장에는 주식이 거래되는 주식시장과 국채, 회사채 및 금융채 등이 거래되는 채권시장이 있다. 넓은 의미의 자본시장에는 주식, 채권이 거래되는 증권시장 외에 은행, 보험회사 등의 장기대부시장도 포함되지만, 일반적으로 자본시장을 증권시장으로 부른다[20].

제 1절 주식시장

1. 주식

주식(common stock)이란 주식회사의 물적 기반을 이루는 자기자본에 대한 출자지분권(equity)을 나타내는 유가증권이다. 주식은 회사에 대한 출자의 증거이고, 출자에 의하여 소유주(주주)가 얻는 권리를 나타내는 증권이다.

주식(stock)은 주식회사에 대한 지분(equity)을 표창하는 증서인 동시에 자본의 구성단위로서의 의미와 주주권으로서의 의미를 동시에 갖는다. 주식은 배당방법, 의결권의 유무, 자본형성방법, 주주성명공시 여부, 주금기재 여부 기준 등 다양한 기준에 의해 분류될 수 있다[21].

2. 주식시장

주식시장은 주식을 신규로 발행하여 장기자금을 조달하는 시장으로서 이를 제 1차 시장(primary market), 새로운 증권이 최초로 출현하는 시장이라는 점에서 ‘신규증권시장’이라고도 하는 발행시장과 이미 발행된 증권이 투자자 상호간에 매매 거래되는 시장으로 주식, 채권 등 증권을 매각하여 투자자금을 회수하거나 이미 발행된 증권을 취득하여 금융자산을 운용하는 시장으로 증권의 2차 시장(the secondary market for securities)이라고도 하는 유통시장으로 나뉜다.³⁵⁾ 증권유통시장의 구조는 유가증권시장, 코스닥 시장, 파생상품시장 및 장외시장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70%이상이 장외에서 거래된다고 볼 수 있다. 장내거래시장은 2010년 4월 기준 상장종목 924개, 일평균거래량423,010(천주), 일평균거래대금 5,684.8(십억원)이 거래되고 있으며 2010년 4월까지 누적 총 거래량은 9,306,221(천주), 총 거래대금은 125,064.4(십억원)의 규모를 가지고 있다. 장외시장은 2010년 4월 기준 상장종목 1,022개,

³⁵⁾한국은행, ‘우리나라의 금융제도

일평균거래량 616,517(천주), 일평균거래대금 1,858.1(십억원)이 거래되고 있으며 2010년 4월까지 누적 총 거래량은 92,058,837(천주), 총 거래대금은 40,977.4(십억원)의 규모를 가지고 있다.³⁶⁾

제 2절 채권시장

1. 채권

채권(bond)이란 정부, 공공기관, 특수법인, 주식회사 형태의 기업 등 발행주체(자금 부족집단)가 일반대중과 법인 투자자 등(자금잉여집단)으로부터 거액의 장기자금을 일시에 대량으로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일종의 채무증서로서 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기관과 회사는 법률로써 정해진다.

채권의 특성은 발행 시 약속된 대로 확정이자율 또는 이자율 결정 기준에 의해 이자가 확정적으로 지급되는 채무 증서로 원리금의 상환기간이 사전에 정해져 있는 기한부 증권이며 장기의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장기증권이다.

채권은 발행주체에 따라 국채, 지방채, 특수채, 회사채등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이 중 국채의 비중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발행시장(primary market)은 소수의 투자자와 사적 교섭을 통하여 발행하는 사모시장과 불특정다수의 투자자를 대상으로 채권을 발행하는 공모시장으로 분류된다. 공모 발행은 주로 장기국채 발행 시 이용되며 한국은행, 증권회사, 종합금융회사 등을 주선기관으로 하여 일반에게 매출된다[22]. 채권의 유통시장은 상장채권만이 거래되는 증권거래소시장과 비상장채권을 포함한 모든 채권이 거래되는 장외시장으로 구분되는데 채권거래는 약 90%가량, 대부분 장외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2010년 채권의 총 거래량은 25,378,826(억원), 거래대금은 25,773,606(억원), 거래 건은 1,868,501건이다. 일 평균 거래량은 239,423(억

36) 한국거래소, 주식통계

원), 거래 건은 17,627건이다.³⁷⁾

2. 기타 특수한 신종사채

(1) 전환사채(CB : Convertible Bond)

전환사채는 사채로 발행되나, 일정기간이 경과해 채권소유자의 청구가 있을 때 미리 약속된 조건대로 발행회사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사채를 말한다.³⁸⁾ 2009년 기준 일평균 거래대금은 2,608(백만원), 상장잔액 합계는 1,168,835(백만원)이다.³⁹⁾

(2) 신주인수권부사채(BW : Bond with Warrant)

신주인수권부사채는 채권자가 채권가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채권발행사(채무자)의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 채권이다. 이 채권은 신주인수권이 채권과 분리되어 유통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는 것(detachable)과 분리거래가 불가능(non-detachable)하여 채권의 소지자만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후자의 경우 채권이 상환되면 신주인수권도 소멸된다 [23].

(3) 교환사채(exchangeable bond)

교환사채는 사채권자가 특정기간 내에 사전에 합의한 교환조건에 따라 발행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다른 기업의 주식과의 교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교환권)가 부여된 채권으로 전환사채와는 달리 발행회사의 주식과 교환하여 지급받으므로 추가적인 자금유입이 없고 자본금이 증가되지 않는다는 점

37) 한국거래소, 채권 총괄표

38) 장희준, 파생상품의 이해와 투자전략, 이펙스코리아

39) 한국거래소, 전환사채 총괄표

에서 앞의 신주인수권부사채나 전환사채와는 다르다[24].

(4) 옵션부 사채(bond with embeded option)

옵션부 사채는 사채 발행 시에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발행회사가 만기일 전이라도 사채의 원리금을 상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로 발행회사가 사채 만기일 전에 조기 매수 청구권을 행사 할 수 있고, 투자자도 조기에 투자원금을 회수할 수 있는 상환 청구권(put option)을 행사할 수 있다는 조건으로 발행되는 사채이다[25].

(5) 영구채(perpetual issue bond)

영구채는 만기일이 명시되지 않고 투자자에게 발행일로부터 영구히 약정이자를 지급하는 채권으로 1984년 영국의 웨스트민스터(West minster)은행에 의하여 처음 발행되었다[26].

(6) 자산유동화 증권(Asset-Backed Security)

자산유동화증권은 유동화의 대상이 되는 각종 채권 및 부동산, 유가증권 등의 자산에서 발생하는 집합화 된 현금흐름을 기초로 원리금을 상환하는 증서로써 자산 담보부 증권이라고도 한다.

자세한 상품 설명은 다음 제 3절 유동화 증권에서 살펴보겠다.

(7) 금리변동부채권(floating rate note : FRN)

FRN은 일정단위기간마다 정해진 기준 금리에 연동된 표면 이율에 의해 이자를 지급하는 채권으로 금리 변동부 채권은 다양한 방식으로 변용되기도 하는데, 이들로는 역금리 변동부 채권(Inverse FRN), 양기준 금리변동부 채권(Dual Indexed FRN), 그리고 디지털 옵션 금리 변동부 채권(Digital

Option FRN)등을 들 수 있다[27].

제 3절 자산유동화증권

1. 자산유동화증권(ABS)

자산유동화증권(ABS : Asset-backed Securities)이란 기업이나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표준화하고 특정 조건별로 집합(pooling)하여 이를 바탕으로 증권을 발행하고 기초자산의 현금흐름을 이용하여 증권을 상환하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의 경우 2차 대전 이전부터 주택 금융을 대상으로 시행되었으며 MBS의 경우 정부보증 등에 높은 신용력을 가지면서 대규모 유통 시장이 형성되었고 그 외 유동화증권의 경우에는 최초 신용카드 계정을 이용한 발행이 성공을 거둔 이래 자동차 대출증권, 매출채권 및 대출채권 등으로 확대되며 시장이 형성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97년 12월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자산유동화 내지 증권화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1998년 제도가 마련되면서 본격화되었다. 2010년 1분기 중 자산 유동화증권의 발행 총액은 3조 9,249억원으로 전년 동기(7조 7,856억원)에 비하여 49.6% 감소하였고, 공모 ABS사채 발행금액은 73.1% 감소하였다.⁴⁰⁾ 자산유동화 증권은 기초자산에는 다양한 유형이 있는데 주택저당채권, 자동차 할부, 신용카드, 채권, 기업대출, 부실채권 등 전통적인 자산이 있다

2. 자산유동화증권의 종류

①주택저당채권(MBS : Mortgage-Backed Securities)

주택저당증권이란 자산유동화증권(ABS)의 일종으로 주택, 토지를 담보물로

40) 금융감독원, “2010 1분기 ABS발행 실적분석

발행되는 채권을 말하는 것으로 간단한 흐름을 보면, 은행 등의 금융회사가 주택 매입자에게 빌려준 주택자금채권을 유동화회사에게 양도하고 이를 매입한 채권유동화회사는 주택저당채권을 일반 투자자에게 발행함으로써 자금이 일반 투자자에게서부터 유동화회사를 거쳐 은행으로 흘러들어가는 형태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

외환위기 이후 재정 경제부는 구조조정을 원활히 수행하면서 실물경기 부양수단으로 자산유동화제도를 추진하던 중 건설교통부가 추진하던 주택저당채권유동화제도를 통합하여 1998년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 1999년 1월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제정, 동년 9월 이 법에 의거하여 한국 주택 저당채권유동화주식회사(KoMoCo)를 설립하였다. 2003년 12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이 제정됨에 따라 주택신용보증기금과 KoMoCo를 통합하고 정부에서 출자하여 2004년 3월 1일 한국주택금융공사를 설립하고 2004년 3월 25일부터 모기지론을 출시하였다[28]. 2010년 1분기 MBS 발행금액은 '09년 하반기 중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고정금리보금자리론 판매 증가 등으로 1조 9,929억원, 전년 동기(2009년 1분기:1조 61억원) 대비 9,868억원(98.1%) 증가했다.⁴¹⁾

②부채담보부증권(CDO : Collateralized Debt Obligation)

CDO(Collateralized Debt Obligation)는 다양하게 분산된 비교적 신용도가 낮은 회사채나 기업대출을 모아 동 자산의 현금흐름에 근거하여 유동화증권을 발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CDO발행에 기본 전제는 해당 자산 풀의 평균 수익률이 발행 유동화증권의 수익률에 비해 높고, 분산된 자산의 집합을 통해 풀의 대손확률이 적정하게 통제될 수 있다는 전제가 적용되어야 한다. CDO는 1987년 중반 첫 선을 보인 후 미국, 유럽 등지에서 발행규

41) 금융감독원, “2010 1분기 ABS발행 실적분석

모가 증가 해 왔는데 2006년 미국 등에서는 1조 달러(약 917조원)어치가 발행될 정도로 큰 인기를 얻었다. 최근에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주범으로 인식되면서 국내, 외로 규제가 확대되고 있다[29].

제 4장 파생금융시장

제 1절 파생상품시장

파생상품(derivatives)이란 금리(채권, 예금증서 등 기초 자산가격), 주가(주식의 가격), 환율(외환의 가격) 등 기초상품(underlying asset)의 가격으로부터 그 경제적 가치가 파생(derive)되는 신상품(금융상품)을 일컫는 말이다. 이와 같은 파생금융상품에는 선물(futures), 옵션(option), 스왑(swap) 등이 있다. 파생금융상품 시장은 금융시장 참가자에게 폭넓은 위험헤지(hedge)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자신의 위험선호도에 따라 자산을 구성하기 쉽게 하고 위험 회피자는 자산 및 부채의 가치변동에 따른 위험을 회피할 수 있으며 위험 선호자 또는 투기자는 이러한 변동을 예측함으로써 이익 획득기회를 얻을 수 있다. 파생상품은 지난 20세기 후반부터 국제금융환경의 불안정성, 즉 추세적 인플레이션 상승과 여러 차례의 석유파동으로 인한 상품 가격 변동 폭 증가 등으로 인해 기존의 기초상품들처럼 간단하게 거래위험(risk)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없게 되었고, 이러한 기초자산의 가격변동성에 대한 방어적 헤징 수단(means of hedging)으로 등장된 것이 파생상품이다[30]. 파생금융상품시장은 장내시장과 장외시장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제 2절 장내파생상품

장내시장이란 가격이외의 모든 거래요소가 표준화되어 있는 파생금융상품이 거래되는 시장으로서 거래소시장이라고도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장내시장으로는 2005년 1월 통합 출범한 한국거래소(Korea Exchange : KRX)가 있다. 한국거래소의 파생 상품 거래량은 연간 28.7억 계약(거래대금 : 연간 8,621조원)으로 총 거래량은 세계 3위이다. 미 달러 선물 및 옵션, CD금리선물, 국채선물 등이 거래되고 있다.

<표 3> 한국거래소 상장파생상품⁴²⁾

채권/금리	통화	주가지수	주식	상품
CD금리선물 (99.4.23)	미달러선물 (99.4.23)			
3년국채선물 (99.9.29)	엔선물 (06.5.26)	코스피200선물 (96.5.3)	개별주식선물 (25종)	금선물 (99.4.23)
5년국채선물 (03.8.22)	유로선물 (06.5.26)	스타지수선물 (05.9.26)	개별주식옵션 (33종)	돈육선물 (07.12)
10년국채선물 (08.12)	미국달러 선물옵션 (99.4.23)	코스피200옵션 (97.7.7)		
통안증권금리 선물(02.12.6)				

1. 선물

선물은 파생상품의 한 종류로서 품질, 수량, 규격 등이 표준화되어 있는 상

42) 자료: 한국거래소 2008.11

품 또는 금융 자산을 미리 결정된 가격으로 미래 일정시점에 인도, 인수할 것을 약정한 거래를 말한다. 기초자산에 따라 통화, 금리, 주가지수, 실물상품 관련 상품 등이 있다. 최초의 선물 거래소는 1650년에 설립된 '오사카 곡물시장'(Dojima rice market)이었다는 것이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현대적인 의미의 선물시장은 옥수수과 밀의 거래를 위해서 1848년 설립된 시카고 선물 거래소 (Chicago Board Of Trade : CBOT)가 그 시초이다.⁴³⁾

① 통화선물

통화선물은 환리스크를 헤지하거나 환차익을 얻기 위하여 특정 통화를 미래의 특정 시점에 미리 정해진 가격으로 매입 또는 매도하기로 하는 거래이다. 통화선물은 통화를 거래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선물환과 비슷하나 통화선물이 거래대상통화, 거래단위, 결제일 등이 표준화된 형태로 선물거래소에서 거래되는 반면 선물환은 모든 계약조건이 거래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결정되고 장외시장에서 거래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거래되는 상품에는 미국달러선물, 엔선물, 유로선물 등이 있으며 미래의 일정한 시점에 인수도 할 통화를 현재시점에서 미리 매수하거나 매도하는 계약이다. 통화선물거래를 살펴보면 2009년 총 거래량 41,758(천건), 거래대금600,036.9(십억)으로 그 중 미국달러선물의 거래 건이 41,162(천건), 거래대금이 684,095.3(십억)으로 대부분을 차지한다.⁴⁴⁾

② 금리선물

금리선물(interest rate futures)이란 이자를 발생시키는 금융상품 즉 채권, 예금 등을 대상으로 하는 선물로서 현재 선물시장에서 거래되는 선물상품

43) 한국증권업 협회, 증권투자상담사 II

44) 한국거래소, 통화선물통계

증 거래량에 있어서 전체의 1/3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중요한 상품이다. 우리나라에서는 3년 국채선물, 5년 국채선물, 10년 국채 선물, 통안증권 금리선물이 거래되고 있으며 3, 5, 10년 국채 선물은 정부가 발행하는 채권으로 유가증권시장본부와 같은 장내 유통시장 또는 증권회사 등을 통한 장외 유통시장에서 거래되고 있고 통안증권 금리선물은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364일 통화안정증권의 유통수익률을 거래대상으로 하는 상품으로 투자자에게 단기금리 변동에 대한 위험관리수단을 제공한다. 2010년 4월 금리 선물의 총계약수는 2150(만건), 계약금액은 238,384.4(십억원)이다.⁴⁵⁾

③주식선물

주가지수선물은 현재 거래되고 있는 선물 상품 중에서 가장 최근에 도입된 금융 상품으로서, 실제로 존재하는 현물을 대상으로 하는 여타 선물거래와는 달리, 여러 종류의 주식으로 구성된 주가지수를 대상으로 하는 상품이다. 코스피200선물은 시가총액 기준으로 산출된 코스피 200지수[산출기준시점 1990. 01. 03]를 거래대상으로 하는 상품이며 스타지수선물은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종목 중에서 시장대표성, 유동성 및 재무건전성이 우량한 30개 종목을 구성종목으로 하는 스타지수[산출기준시점 2003. 1. 2/1,000p]를 거래대상으로 하는 상품이다. 개별주식선물은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고 유통주식수가 1,000만주 이상, 소액주주가 10,000명 이상, 1년간 총 거래 대금이 5,000억원 이상인 보통주식 중에서 시가총액과 재무상태 등을 감안하여 선정한 25개 기업이 발행한 주식을 거래대상으로 하는 선물상품이다.(2009. 12. 14 기준. 25개 기업) 2009년 12월 기준 KOSPI 200선물의 계약은 83,117건, 거래 대금은 7,652,807.1(십억원)이며 2009년 상반기 거래량 기준으로 세계 13위를 차지했다.⁴⁶⁾ 스타지수 선물의 계약은 그 거래량이 미미하다.

45) 한국거래소, 금리선물통계

④상품선물

상품시장은 상품 종류에 따라 농축산물시장, 금속시장, 에너지 시장 등으로 구분되며, 각각 하위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품의 종류는 너무나 다양하고 가격변동의 특성도 서로 다르기 때문에 파생상품도 하위시장과 상품별로 다양하게 개발되었다. 우리나라에서 거래되는 상품으로는 미래의 일정시점에 인수도할 금을 현재 파생상품시장을 통해 매매하는 계약으로 금 가격의 변동 리스크에 노출된 기업은 금 선물을 이용하여 헤지할 수 있고, 투자자는 채테크의 수단으로 금 선물을 활용할 수 있는 금 선물과 돼지 가격의 변동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사전에 약속된 미래의 특정시점에 1계약 당 1,000kg에 해당하는 돈육 대표가격을 사거나 팔 것을 약정하는 선물거래로 돈육의 가격을 거래대상으로 하는 거래인 돈육선물 등이 있다. 돈육선물은 그 거래가 매우 미미하며 금선물의 경우도 2009년 12월 기준 2(천건), 거래대금 69.9(십억원)이다.⁴⁷⁾

2. 옵션시장

옵션(Option)이란 사전적 의미로는 선택권이란 뜻으로서 일정한 기간동안 미리 정해진 가격으로 어떤 특정한 자산을 사거나 팔 수 있는 권리를 약속하는 계약이다. 특정한 자산은 기초자산 또는 거래대상(Underlying Asset)이라고 하고 특정한 날짜는 만기일 또는 최종거래일(Expiration Date)라고 하며, 약정한 가격은 행사가격(Exercise Price 또는 Strike Price)이라고 한다. 그리고 기초자산을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콜옵션(Call Option)이라 하고 기초자산을 매도할 수 있는 권리를 풋옵션(Put Option)이라 한다.

46) 한국거래소, 주식선물통계

47) 한국거래소, 상품선물통계

(1) 옵션의 종류

옵션은 권리행사 방향에 따라 콜옵션과 풋옵션으로 나누어지며, 일정한 기일(만기일)에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유럽형 옵션과 만기일 이전이라도 언제든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미국형 옵션이 있다. 또한 옵션은 권리행사 대상자산에 따라 주식옵션(Stock Option), 주가지수옵션(Stock Index Option), 통화옵션(Currency Option), 금리옵션(Interest Rate Option) 그리고 상품옵션(Commodity Option)으로 구분된다.

① 주식옵션

옵션거래의 기초자산이 개별주식인 주식옵션은 세계적으로 여러 증권거래소와 옵션거래소에서 거래되고 있다. 개별주식 옵션은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고 유통주식수가 1,000만주 이상, 소액주주가 10,000명 이상, 1년간 총 거래 대금이 5,000억원 이상인 보통주식 중에서 시가총액과 재무상태 등을 감안하여 선정한 30개 기업이 발행한 주식을 거래대상으로 하는 상품이다.

② 주가지수옵션

주가지수옵션거래란 주가지수를 대상자산으로 하는 옵션거래를 말한다. 주가지수는 주식시장의 지표이므로 그 시장전체의 동향을 나타낸다. 따라서 주가지수옵션거래를 이용하면 개별종목의 가격변동보다는 시장전체의 동향이나 변동성 추이를 전망하여 주식시장 전체에 대한 투자를 할 수 있다. 대표적인 주식옵션으로는 코스피 200 옵션으로 시가총액 기준으로 산출된 코스피 200지수[산출기준시점 1990. 01. 03]를 거래대상으로 하는 상품이다. 2009년 말 기준 거래량은 2,920,991(천건), 거래대금은 256,578.1(십억원)이다. 2009년 상반기 거래량 기준으로 KOSPI200지수 옵션이 전세계 1위를 차지했다.⁴⁸⁾

③ 통화옵션

미래의 어느 특정일 또는 특정일 이전에 어느 특정 통화의 일정량을 지불하는 대가로 다른 통화의 일정량을 지급받는 권리를 통화옵션이라 한다. 통화옵션은 환위험에 대한 헷지를 제공하면서 옵션매입자의 이익을 보장할 수 있다. 거래소에 상장된 통화옵션으로는 미국달러옵션이 있다.

④ 금리옵션

금리옵션은 고정금리를 지불하는 채권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옵션이다. 금리옵션은 기초자산의 성격에 따라 단기금리옵션과 장기금리옵션으로 구분하며, 현물옵션(Cash Option)과 선물옵션(Option on Futures)로 구분하기도 한다. 단기금리옵션은 대부분이 선물옵션이다. 시카고 옵션거래소(CBOE : Chicago Board Options Exchange)의 경우에는 금리옵션이 미국 내에서 97%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금리옵션이 거래되고 있지 않다.

⑤ 선물옵션

선물옵션의 경우 선물계약을 옵션의 기초 물로 하는 계약이다. 현재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대부분의 선물계약에 대한 선물옵션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선물옵션을 행사하면 대상현물의 매매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현물에 대한 선물계약이 이루어지는 있는 것이다.

⑥ 상품옵션

상품옵션은 상품(Commodity)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옵션으로서 일시 거래가 부진하였으나 1984년 이후 미국에서 금속과 농산물에 대한 옵션거래가

48) 한국거래소, 주식옵션통계

재개되었다. 특히 귀금속에 대한 옵션은 세계적으로 여러 거래소에서 취급되고 있다. 상품옵션도 현물옵션과 선물옵션으로 구분된다.

제 3절 장외파생상품

거래소를 통하지 않고 쌍방간의 협정에 의해서 거래되는 파생상품을 말하는 것으로 주가지수와 채권선물이 전형적인 거래소 상장상품이라면 금리 스왑과 선물금리 계정은 대표적인 장외 파생상품이다. 거래당사자의 다양한 니즈에 맞추어 자유롭게 약정기간을 설정할 수 있는 주문자 생산형이 특징이다. 파생상품거래 중 장외거래가 70%이상이며 장외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거래소 거래와는 달리 상대방의 여신 리스크 관리를 빼놓을 수 없다. 2009년 기준 총 거래량은 12,733,354(십억원)이며 통화관련 거래(약 76%)와 이자율 관련거래(22%)가 주를 이룬다.⁴⁹⁾

1. 장외선도

①금리선도

선도 장외 파생 상품의 선도금리계약(FRA: Forward rate agreement)은 계약 당사자간에 정해진 명목원금에 대한 명목상의 대출에 대하여 미래에 적용할 금리를 현시점에서 미리 약정하는 계약으로 선도금리계약의 매입자는 금리가 하락하면 약정한 금리와 실제 금리간의 차이만큼 매도자에게 지불하고, 반대로 금리가 상승하면 약정한 금리와 실제금리와의 차이만큼 수취한다. 기초자산은 예금이다. FRA는 1983년 Citicorp international에 의하여 개발되었으며, 다음해부터 활발히 이용되기 시작하였다. 금리선도 2009년 말 기준 거래량은 192,730(십억원)이다.⁵⁰⁾

49) 금융감독원, 2009년 4분기 파생상품 거래 총괄표

50) 금융감독원, 2009년 4분기 파생상품 거래 총괄표

② 통화선도(선물환)

특정외화를 장래의 특정시점에서 특정 환율로 매매 할 것을 약정하고 1년 이내에 외화인수도 및 결제가 이루어지는 외환매매거래이다. 1980년 7월 원화와 외국통화가 선물환 거래를 정식으로 시작하였다. 거래한도는 건당 미화 1만불 ~ 100만불 이내로 거래액은 외환 신용대출 한도 내에서만 가능하다. 주문방법은 시장가거래(거래시점의 선물환율로 즉시 체결)이며, 거래대상은 개인 및 법인고객 대한민국 국민인 거주자면 가능하다.⁵¹⁾ 2009년 말 기준 통화선도의 거래량은 9,274,592(십억원)으로 전체 장외파생상품 거래량의 약73%를 차지한다.⁵²⁾

2. 장외스왑

① 이자율스왑(IRS)

두 거래 당사자가 각각의 채무에 대한 이자지급의무를 일정기간 동안 서로 바꾸어 부담하기로 약정한 거래를 말하는 것으로 가장 일반적인 금리 스왑의 형태는 고정금리(fixed rate)와 변동금리(floating rate)를 거래당사자 간에 주기적으로 교환하는 거래로 이때 교환되는 고정금리를 IRS 금리라고 한다. 한국의 경우 금융투자협회에서 발표하는 CD(3개월물)을 사용하고 있다. 1976년 금리 스왑이 처음 생성, 국내에서는 채권 및 국채선물 시장의 발달 등으로 적절한 헤지 수단이 제공되면서 시장 규모가 크게 확대되기 시작했다. 최근에는 단순한 형태에서 벗어나 선도금리계약(FRA), 옵션 등의 각종 금융거래기업들이 합성되면서 다양한 형태로 거래되고 있다. 전세계 장외 스왑거래 중 금리 관련 거래가 압도적으로 많다. 2009년 말 기준 이자율 스왑(IRS) 거래량은 2,482,172(십억원)으로 계속해서 증가 추세이다[31].

51) 외환은행, 외환FXKEB, FX딜링, 선물환

52) 금융감독원, 2009년 4분기 파생상품 거래 총괄표

② 통화 스왑(CRS)

통화 스왑은 서로다른 통화에 발생하는 미래의 현금흐름을 교환하는 계약으로 원금 및 이자를 동시에 교환한다. 통화 스왑의 가장 큰 특징은 두 거래 당사자들의 주기적으로 교환하는 연속적인 현금흐름이 서로 다른 통화로 표시된다는 점이다. LIBOR(6개월)와 원화 고정금리간의 교환이 가장 일반적인 통화 스왑 형태로 이때 교환되는 원화 고정금리를 CRS금리라 한다. 국내 통화 스왑 시장도 해외 채권투자 확대, 구조화채권 및 자산유동화증권의 해외 발행 증가, 기업들의 환위험 관리에 따른 외화 수요 증대 등의 영향으로 크게 성장했다. 2009년 말 기준 통화 스왑(CRS) 거래량은 349,466(십억원)으로 전년 대비 감소하였다[32].

3. 장외옵션

장외옵션이란 공인된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장내옵션과는 달리 시장참가자간의 일대일 계약형태로 자유롭게 거래되는 옵션계약을 의미한다. 이러한 옵션은 거래소가 존재하지 않는 만큼 고객의 요구에 따라 매우 유연한 구조를 가질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그 구조가 매우 다양하다. 장외옵션의 대명사처럼 되어 있는 것이 이색옵션(exotic option)인데, 이색옵션은 그 특성에 따라 다양한 종류가 있지만, 경로 의존형, 점점 수익 구조형, 시간 의존형, 다중 변수 의존형, 중첩옵션(옵션에 대한 옵션), 레버리지형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제 5장 신종결합상품

1.ELW

특정주식이나 주가지수를 미래의 일정시점에 사전에 약정한 가격으로 살

권리(콜워런트) 또는 팔 권리(풋워런트)가 부여된 자본시장법상 파생결합증권을 말한다. 유럽에서 가장 활발히 거래되고 있으며 국내 ELW시장은 2005년 12월 개설 이래 빠른 시간 성장하여 2010년 1분기에는 5,095종목이 상장, 거래되는 세계 3위 규모의 시장으로 성장하였다. 발행주체는 증권거래법상 파생금융상품을 영업을 인가받은 증권사에만 한정되고 대상 종목은 유동성이 풍부한 KOSPI100구성종목과 주식 바스켓, KOSPI200 지수 등이다. 만기는 최소 3개월 이상 3년 이내, 발행총액은 10억원 이상이다. 증권회사에 매매거래계좌를 개설하여 주식과 동일한 방법으로 거래하면 된다. 매매단위 수량은 10증권, 호가단위 역시 주식의 호가단위와 동일하다. 가격 제한폭은 없으며 증거금은 100%이다.

일평균 거래대금은 전 분기 대비 30.4% 증가한 1조 4,130억원, 시가총액은 88,166억원이다. 기초자산별로는 지수 ELW 거래비중이 86.9%, 권리유형별로는 콜 ELW 비중이 64.7%를 차지하고 있다.⁵³⁾ 주식 ELW 중에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LG디스플레이 등이 주식 ELW 전체 거래대금 중 각각 16.0%, 11.0%, 8.1%로 상위권을 기록했다. ELW는 주식을 직접 살 때 보다 적은 돈으로 투자가 가능하고 전환비율을 적용해 주식을 쪼개어 사는 효과가 있다. 해당주식이 확실한 기초를 보일 때에는 레버리지 효과로 인해 주식투자 보다 높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으나 변동성이 큰 상품이므로 상품을 가입할 때는 반드시 주의해서 가입해야 한다.

2. ELS/DLS

ELS란 국내 또는 해외의 주가지수나 특정주식 가격에 연계하여 수익이 결정되는 파생결합 증권으로 발행시점에 미리 정해진 수익구조에 따라 투자손익이 결정되는 상품이며, 최근 ELS 발행규모는 전월대비 1147 억 증가한

53) 한국금융연구원, 김영도, 국내 ELW시장의 성장과 향후 과제

약 1조7579억원, 발행건수는 828건으로 2003년 ELS의 발행규모를 집계한 이후로 최대 규모이다.⁵⁴⁾ 발행규모와 건수는 대우증권이 각각 3793억원, 126건으로 업계 1위이다.

ELS는 크게 원금 보장형과 비보장형으로 나눌 수 있으며 원금보장형에는 녹아웃(Knoc-out)형, 불스프레드(Bull Spread)형, 디지털(Digital)형, 리버스 컨버터블 (Reverse-Convertible)형, 양방향 녹아웃형이 있으며 원금 비보장형에는 주식형과 조기상환형이 있다. 최근에는 상환조건(조기, 만기)의 배리어(기준)가 순차적으로 낮아지는 특징이 있는 스텝다운(Step-Down)형 ELS가 발행되고 있다. 향후 수익구조의 다양화, 만기구조의 장기화 등이 기대된다.⁵⁵⁾

DLS는 이자율, 통화(환율), 실물자산(금, 은, 원유, 구리, 곡물), 신용위험(기업 신용등급, 파산)등의 변동과 연계하여 투자손익이 정해지는 상품이다. 원금보장 유무, 만기조건, 기초자산, 수익구조 등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운용이 가능하다. 투자 기간은 보통 2년 정도가 많으나 6개월, 1년, 3년으로 기간을 설정하기도 한다. 증권사가 발행하며 판매는 은행과 증권사에서 한다. 최소가입금액은 1,000만원이다. 2010년 4월 DLS의 발행금액은 6502억원으로 동기(7045억원)대비 125% 급증했다⁵⁶⁾. ELS는 개별종목이나 인덱스 펀드 등을 이용하여 기초자산에 직접투자 하는 방법에 비해 투자비용이 매우 크다.

제 2편 금융시장의 분석과 전망

54) 한국금융투자협회, ELS통계

55) 자본시장연구원, ELS

56) 한국예탁결제원, DLS발행통계

제 6장 금융시장의 분석

1. 단기금융시장

2009년 단기금융시장 규모를 살펴보면 12월 말 기준 809.5조원 전년 말 대비 15.2%증가했다. 정부의 유동성 공급이 확대되었던 1/4분기에는 콜 거래가 급격히 감소했으나 2분기부터는 제자리를 찾았다.⁵⁷⁾ Call은 2008년부터 2009년 콜 금리가 큰 폭으로 떨어졌다가 2009년 12월 기준 1.98%에서 2010년 1월에는 2.00% 소폭 상승했다. 2010년 6월 8일 기준 콜금리는 2%를 웃돌다 하락한 1.95%이다.⁵⁸⁾ 거래금액은 607.4조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24.4% 증가하였으며 2009년 평균 거래금액은 125,293,500(백만원), 일평균 결제량은 561,122건이다.⁵⁹⁾ CD는 2010년 1/4분기 평균 86,826.1(십억원)거래되었다. CD거래는 최근에는 예대율 규제도입으로 인해 발행규모가 급격히 감소하였는데 2010년 1분기에는 전기대비 -13.4%나 감소했으며 CD 발행 축소를 통해 시중에 단기 자금들이 CP, 정기예금, MMT등으로 이동할 것이라 예상된다.⁶⁰⁾ CP는 2009년에는 초단기 물부터 장기물까지 수요가 꾸준히 형성되어 거래량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2010년 1분기 평균 거래량은 45,536.4(십억원)으로 향후 CD발행 감소에 따른 거래량 증가가 예상된다.⁶¹⁾ RP거래는 기관간의 거래 활성화에 따라 꾸준히 성장해 2010년 4월 기준 452,098.7(십억원)거래되었다.⁶²⁾ wrap-account의 경우 최근 펀드를 대체할 만한 상품으로 떠오르

57) 2009' KIF 금융백서

58) 한국은행. 금리. 시장금리

59) 2009' KIF 금융백서

60) 한국금융연구원. 금융 상품분석 및 전망

61) 한국채권평가. weekly-100607.

62),30) 2009' KIF 금융백서

고 있는데 국내 증권사들의 랩어카운트 잔액을 보면 2010년 3월에는 20조 8974억원으로 2003년 판매 시작 이후 매년 30-50%성장하고 있다.⁶³⁾

CMA는 최근 들어 가장 인기 있는 상품으로 상품구성을 살펴보면 09년 말 기준 RP형 CMA가 65%(계좌잔액 25,016,869(백만원)), 종금형 CMA가 16%(계좌잔액 6,204,646(백만원)), MMF형 10%(3,751,953(백만원)), Wrap형 등이 9%이다. 현재까지는 종금형 CMA만 예금자 보호대상이다.⁶⁴⁾

2. 은행금융시장

금융권 총자산의 합계는 2009년 말 2,645,046.7(십억원)으로 이중 은행이 7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일반은행의 총 수신은 1,009,671.0(십억원), 총여신은 1,285,794.6(십억원)이다.

2010년 3월 기준 원화 예수금은 645,726.6(십억원)으로 그 중 요구불 예금이 약 9%(59,035.0(십억원)), 저축성예금이 나머지를 차지한다. 2009년 대비하여 요구불 예금이 감소하였으며 정기예금의 증가로 저축성 예금은 소폭 상승하였다. 은행의 대출금 규모는 10년 3월 기준 678,616.4(십억원)으로 기업대출과 가계대출이 비슷한 비중을 보이거나 주택자금 대출의 감소로 가계대출이 소폭 하락하였다.⁶⁵⁾ 가계 대출 중 주택담보 대출은 하반기 정부의 부동산 DTI규제강화, 보금자리주택 공급계획에 따른 주택구입 연기 등의 원인으로 그 증가세가 둔화되었다. 대출금리는 09년 5.65%였으나 10년 4월 5.49%로 하락했으며 COFIX가 도입되면서 소비자 및 은행의 대출 형태 변화도 예상해 본다.⁶⁶⁾

63) 증권투자협회. CMA잔액현황.

64) 증권투자협회. CMA잔액현황.

65) 금융통계월보. 은행편

66) 김영도 외. 한국금융연구원. "예대출규제가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분석"

신탁계정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09년 말 금전신탁이 52,832.9(십억원), 재산신탁이 63,008.5(십억원), 이중 특정금전신탁이 35,738.1(십억원)을 차지한다. 67)특정금전신탁은 올해 초 유동성이 넘쳐나면서 시중 단기자금들이 고금리를 쫓아 MMT로 몰리면서 올해 2월 말 증권사의 MMT 잔액은 32조가 넘었으나 운용규제를 받으면서 현재는 10조원 가량 빠져나간 22조 7천억원, 수익률 또한 예전 같지 않다. MMT에서 이동한 자금은 주로 MMDA나 CMA는 수시 입출금식 단기 금융상품으로 몰릴 것으로 예상 된다.

3. 보험 및 연금시장

먼저 생명보험회사의 경우 10년 2월 신계약 률은 21.16% 상승했으며 이중 10년 2월 기준 보장성보험료는 271,749.9(십억원), 저축성 보험료는 80,133.2(십억원)이다.68) 생사혼합보험의 비중이 전년 동기 대비 4.6%p 상승했으며 이 것은 최근 증가된 단기 부동산에 대한 각 금융업권 간 유치경쟁이 치열해지고 생보사들이 방카슈랑스 채널 중심으로 연금보험 등 저축성 상품을 적극적으로 유치했기 때문이라 볼 수 있다.

생명보험협회에서 2,000가구를 대상으로 생명보험회사 및 생명보험 전반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보험성향조사서’에 따르면 조사시점기준(2008년) 가구별 보험 상품별 가입 선호도는 연금보험(34.9%), 실손 의료보험(28.7%), 장기 간병보험(26.7%), 저축성보험(21.8%)로 이는 고령화 사회의 인식과 더불어 퇴직 후의 생활, 질병, 간병 등에 대한 대비로, 당연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소비자 선호도 결과에서도 볼 수 있듯이 2010년 들어 각 보험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상품의 트렌드가 조심스럽게 변하고 있는 가운데 2009년 하반기부터 연금을 비롯한 저축성보험의 판매가 눈에 띄게 늘고 있는 추세이

67) 금융통계정보시스템. 신탁 편

68) 생명보험협회. 통계월보

다. 먼저 저축성 보험의 가입이 많아지고 있는 것은 최근 보험사에서 저축성보험에 대한 공격적인 이율 적용이 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장기손해보험은 신계약 매출이 늘어나 전년 동기대비 13.1%증가 09년 10~11월 6조9,920억을 기록, 고성장세가 지속되고 있다.⁶⁹⁾ 장기 무배당 통합형 보험 상품의 판매 증가와 GA(법인 대리점)판매채널을 통한 매출확대 등에 힘입어 호조세이다.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실손 의료보험과 장기 간병보험 역시 꾸준한 판매고를 올리고 있는데 실손 의료보험이란 실손 의료비를 보상하는 상품으로 병, 의원 및 약국에서 ‘입원’, ‘통원’, ‘처방조제’로 인하여 실제로 지출한 의료비 중 급여의 본인 부담금과 비 급여에 대해 일정부분 보상하는 보험으로 한도는 1년에 5,000만원까지이고 현재는 생명보험이든 손해보험이든 동일한 보장을 갖는다.⁷⁰⁾

4. 자본시장

증권사의 경우 09년 4/4분기 조정장세가 지속되고 투자심리가 위축되어 고객 예수금이 전기대비 15.3%(3.7조원) 감소했으며 자산운용사의 경우 채권펀드를 제외한 모든 금융상품에서 자금이탈이 발생했으며 전기대비 14조원 가량 자금유입이 감소했다. 특히 MMF의 경우 3%미만으로 수익률이 하락, 다량의 자금이 이탈되었다.⁷¹⁾

2009년 주식시장은 동유럽 국가들의 채무불이행 가능성, 유동성축소와 자산가치 하락, 글로벌 경기침체 등의 대외적 요인들의 영향으로 3월 2일 연중 최저점인 1,018.81포인트까지 하락하였다. 이 후 점차적으로 각국에서 다

69) 손해보험협회. 사업개황

70) 손해보험협회. 상품 공시실

71) 금융연구원. 2010년분석-금융동향

양한 경기부양 정책이 추진되고 국내 외환시장이 안정되면서 주가는 상승세로 반전되어 10년 6월 1,645포인트까지 상승했다. 글로벌 금융시장이 위기에 벗어나고 저금리 기조가 유지됨에 따라 주요국 주가가 연초에 비해 모두 상승, 우리나라는 45.4%, 미국 15.4%, 일본 16.5% 주가가 상승했다.

채권의 발행규모는 2009년 전기대비 크게 증가하였다. 경기 침체 극복을 위한 추경예산 편성으로 국고채는 약 85조원으로 63.2%나 증가했으며 통안증권 역시 전년 대비 148.0% 증가한 375 조원이 발행되었다. 외국인, 기관 및 개인, 특히 자산운용사(160조원)가 채권 순매수 규모를 확대하였으며 2009년 채권의 거래실적은 4, 652조원으로 전년 대비 45.7% 증가했다. 채권 거래는 주로 장외 시장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장외거래 비중은 89.2%이다. 주요 채권의 수익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4> 주요채권의 수익률⁷²⁾

단위(%)	2007년	2008년	2009년				
			1Q	2Q	3Q	4Q	연중
국고채(3년물)	5.23	5.27	3.64	3.90	4.30	4.34	4.05
통안증권(1년물)	5.21	5.33	2.63	2.69	3.19	3.39	2.98
회사채 (3년물)/AA등급	5.70	7.04	6.82	5.36	5.59	5.46	5.79

국고채 수익률의 경우 09년 상반기에는 경기침체 여파로 하락세를 이어갔으나 하반기에는 경기회복세 지속 및 출구전략 논의 등으로 완만하게 상승, 09년에는 4.04%, 2010년 4월 기준 3.77%이며 금리인상 우려에 따른 단기금리 상승으로 장단기 금리차가 축소되는 추세이다. 회사채 수익률은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 풍부한 시중유동성 및 저금리 정책 지속 등으로 상대적

72) 자료 : FnGuide

으로 금리 메리트가 높은 회사채에 대한 매수세가 활발히 유입되면서 하락세를 이어갔다. 09년 평균 수익률은 5.79%, 2010년 4월 기준 4.69%이다. 최근 회사채의 거래는 건설사 구조조정 등 신용위험이 부각되면서 투자자들이 관망세를 보임에 따라 회사채 거래는 부진한 추세이다[33].

2010년 1분기 중 자산 유동화증권의 발행 총액은 3조 9,249억원으로 전년 동기(7조 7,856억원)에 비하여 49.6% 감소하였고, 공모 ABS사채 발행금액은 73.1% 감소하였다. 자산유동화증권은 새로운 금융상품으로 제도 도입 초기부터 높은 발행실적을 보이며 성장하여 현재 채권시장에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010년 1분기 MBS 발행금액은 '09년 하반기 중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고정금리 보금자리론 판매 증가 등으로 1조 9,929억원, 전년 동기(2009년 1분기:1조 61억원) 대비 9,868억원(98.1%) 증가했다. 부채 담보부 증권인 CDO는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의 주범으로 국내, 외로 규제가 확대되고 있다 [34].

5. 파생상품시장

국내 파생상품시장은 2009년 중 금융시장 불안 지속에 따른 파생상품 수요의 증가로 전년 대비 일평균 거래량(1,231만 계약)의 경우 5.5%, 일평균 거래대금(43조원)은 23.1% 늘어나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글로벌 경기 침체와 금융 불안 지속에 따른 헤지 및 투기수요가 증가했으며 특히 선물시장의 거래 규모가 큰 폭 증가했다. 반면 KOSPI200옵션 거래량은 3.5%증가하는데 머물렀다. 옵션시장은 1.0조원으로 전년 대비 -12.4%감소했다[35].2009년 KOSPI200 선물거래량은 전년 대비 일평균거래량 328,528계약 22.6%증가했다.

<표 5> 주요 상품별 일평균 거래량 및 거래대금⁷³⁾

(단위 : 계약, 억원, %)

	일평균거래량			일평균거래대금		
	2008	2009	증감률	2008	2009	증감률
KOSPI200선물	267,878	328,526	22.6	251,498	302,482	20.3
3년국채선물	64,156	79,252	23.5	68,654	84,337	27.2
미달러선물	134,237	212,912	58.6	15,056	27,039	79.6
주식선물	70,013	146,132	108.7	415	635	53.0
선물전체	513,853	769,189	49.7	336,058	417,964	24.4
KOSPI200옵션	11,155,139	11,545,418	3.5	11,582	10,141	-12.4
합계	11,668,992	12,314,607	5.5	347,640	428,106	23.1

금융위기의 여파로 전 세계적으로 금리 파생상품시장이 위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금리선물시장에서의 주요 상품인 3년 만기 국채선물시장은 2009년 중 총 거래량 2,005만 계약(27.9%), 거래대금 2,209.6조원(31.7%)를 기록했다.

장외파생상품의 거래규모는 09년 2분기 이후부터 소폭 회복되기 시작했으나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2009년 상반기 국내 장외파생상품 거래규모는 4조4920억 달러로 세계 시장의 0.7%에 불과한 실정이다.

<표 6> 장외파생상품잔액현황 ⁷⁴⁾

(단위 : 십억원)

구분	2007	2008	2009
장외거래합계	4,661,638	6,020,260	6,201,936
주식관련거래	61,050	57,891	96,408
주식선도	490	76	90
주식스왑	7,879	19,957	9,940
주식옵션	38,024	27,358	60,973
주식ELW	14,657	10,500	25,405

73) 한국거래소 KRX

74) 금융감독원

이자율관련거래	2,532,194	3,380,801	3,782,292
이자율선도	25,131	29,515	16,924
이자율스왑	2,331,781	3,044,390	3,528,366
이자율옵션	175,282	306,896	343,505
통화관련거래	2,060,828	2,568,231	2,204,840
통화선도	1,263,931	1,389,234	1,271,339
통화스왑	630,858	982,439	866,833
통화옵션	166,039	196,558	66,667
기타관련거래	5,967	6,931	3,521
기타선도	1,840	1,705	669
기타스왑	633	1,146	1,339
기타옵션	3,493	4,079	1,513
신용관련거래	1,599	6,406	8,372
신용부도스왑	1,539	6,361	8,367
총수익스왑	60	45	6

상품별로 살펴보면 주식 관련 상품은 주식시장의 회복과 더불어 빠른 회복세를 보이며 거래규모와 거래 잔액이 증가하였다. 이자율 상품은 3분기 이후 국내외 금융 불안이 다소 해소되면서 스왑 거래를 중심으로 거래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였다. 통화상품은 국제수지 흑자와 외국인주식 순매수가 증가하고 외환거래가 증가하면서 빠른 수준으로 회복했다.⁷⁵⁾

제 7장 향후 금융시장의 전망

2010년 역시 글로벌 위기의 여파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부동산 시장의 규제, 수익률에 따라 이탈한 자금 등 단기시장에 풀린 유동성 자금을 흡수하기 위해 각 금융권 마다 다양한 마케팅을 시도 할 것으로 보인다. 단기 금융시장은 기본적으로 수익률에 따라 움직인다. 작년, 수익률을 따라 MMF나 MMT에 몰린 자금이 수익률이 하락하자 빠져나간 것처럼 소비자

75) 2009' KIF 금융백서

들은 일반적으로 수익률에 가장 큰 영향을 받게 된다. 최근 유사한 단기 금융 상품의 수익률이 CP(2.45%), CMA(2.53%), CD(2.72%)인데 비해 7일 만기 MMF의 수익률은 2.45%로 낮은 수준이고 이와 같은 수익률 하락은 MMF로부터의 자금 이탈을 유도했다. 현재 상대적으로 CD, CP, RP 등이 수익률이 높으나 개인투자자가 거래하는 데에는 제한이 있다. 해서 이러한 단기 금융 상품등에 집중 투자하는 CMA나 MMDA를 이용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겠 다. 특히 RP형 CMA는 자금을 확정 금리형 RP에 투자하고 확정금리를 지급 받는 형태이므로 요즘과 같이 금리 변동성이 큰 시기에는 유리한 상품이라고 볼 수 있겠다. 2011년 종금형 CMA의 취급이 만료에 대비해 마케팅에 변화가 있을 것이라 예상되며 금리 변동성확대에 따른 리스크 관리를 위해 유동성관리에 유리한 Wrap형 CMA도 확대 될 가능성이 보여 진다.

단기 금융 상품 중 2010년 하반기 투자 대상으로 고려 할 만한 상품으로는 wrap-account가 있다. wrap-account는 자산 배분에 보다 적극적인 형태이고 최근 수익률 또한 높다. 또 펀드와 달리 시장변화에 따라 주식 등의 자산 비중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인데 변동성이 확대된 시기에는 자산 비중 조정을 통해 손실에 대비할 수 있을 것이다. 초기에는 가입단위가 최소 1억 이상의 고액 투자 상품이였으나 천 만원, 월 10-30만원 수준의 적립 식 상품이 나옴으로서 접근성이 좋아지고 최근에는 수익률이 펀드에 웃돌며 큰 인기를 끌고 있다.

향후 은행시장의 상황을 예측해 볼 때 2010. 3. 25 「예대율 규제도입」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다. 은행은 예대율을 맞추기 위해 대출의 비중을 줄일 것이다. 실제로 2009년 기준으로 동기에는 14%의 증감률을 보이던 총 대출금이 2009년에는 4%의 증감률을 보였으며 09' 4/4분기에는 동기 대비 -0.5%, 10' 1/4분기에는 1.0%의 증감을 보이고 있다. 가계 대출 또한 주택자

금이 전 분기 대비 0.2%감소한 형태를 띠었다.⁷⁶⁾ 또한 시중 은행들은 CD발행 축소에서 오는 수신 부족을 저축성 예금으로 보강할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은행간 예금확보 경쟁이 심화되고 은행의 고금리 특판 예금을 비롯한 다양한 상품의 마케팅 역시 공격적 일 것으로 예상된다.

보험시장의 경우 향후에는 그간 판매가 부진했던 일반손해보험의 활성화가 예상된다. 모집수수료 측면에서도 장기손해보험은 3% 대 인데 비해 일반손해보험은 보통 13% 이상⁷⁷⁾으로 이점을 활용하여 방카슈랑스 판매채널을 통해 가입을 증가시킬 수 있겠다. 저축형 보험 상품을 선택 시에는 시기에 따라 5년 이내 투자목적일 경우에는 보험사 보다는 은행이나 증권사의 투자형 상품이 유리할 수 있으며 10년 이상의 장기 목적일 경우 저축형 보험 상품을 이용하면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와 복리효과를 누릴 수 있다.

또한 '58년' 세대들의 퇴직 증가로 연금 시장의 확대는 가속화 될 것으로 보여 진다. 해서 각 보험회사는 자신의 규모나 조직의 특성에 맞는 영업 전략을 기반으로 다양한 상품을 개발해 연금수요를 이끌어 내고 있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경우 매우 민감하게 변동하므로 여전히 남아있는 글로벌 위기 여파와 불안한 국내 정세 등을 감안 한다면 큰 수익을 기대하긴 어려울 것이다. 주식시장에 직접적으로 투자하는 대신 주식시장과 연계된 ELS, ELW, ELF 등을 이용하면 보다 안전하게 주식 상품에 투자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주식시장의 지지부진한 상황을 고려했을 때 주가지수 연계 상품보다는 DLS 등의 다양한 기초상품을 결합하여 투자하는 상품이 인기 있을 것이라 예상된다.

76) 김영도 외. 한국금융연구원. “예대율규제가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분석.”

77) 손해보험협회. 수수료비교공시

최근 증가하고 있는 결합상품의 발행 추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1.>⁷⁸⁾



2010년 1/4분기부터 동결되었던 기준금리 인상 기대감으로 금융시장은 다양한 변화를 겪고 있었다. 저금리 정책을 정상화하고,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를 억제하기 위해 금리 인상이 필요할 것이라고 예상되는 가운데 시장은 이미 100bp이상의 금리상승을 채권수익률에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자본시장연구원은 추정하고 있다.⁷⁹⁾ 실제로 국고채, 회사채등의 시중금리가 상승하였으나 그 폭이 미미하다. 하반기에 금리 인상이 되더라도 단기적으로 채권 금리가 동요될 수 있으나 이미 지난해부터 꾸준한 기대감이 반영되었으므로 다시 안정을 찾을 것이다. 채권 매수 타이밍을 노린다면 기준금리 인상이 발표되고 일시적으로 채권금리가 오를 때 매수하는 것이 좋을 듯 하다.

자산유동화 증권은 최근 신용위험이 부각되면서 발행시장의 부진이 지속되고 있으나 향후 국내 유동화시장은 대상자산의 확대와 유동화에 대한 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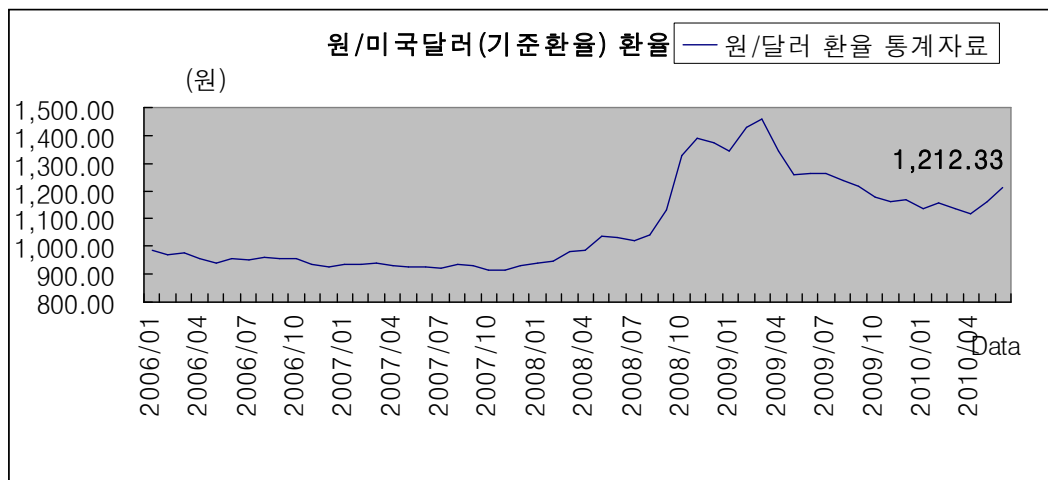
78) 한국거래소

79) 황세윤, 자본시장 전망과 주요 이슈 : 채권시장, 자본시장연구원

자의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다양한 자산 보유자들의 유동화증권 발행이 추진되어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되며 또한 주택금융시장의 확대, 현금흐름을 중시하는 경영의 정착 등에 따라 유동화증권 발행 니즈도 계속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어 유동화시장의 활성화가 지속 될 것으로 전망된다.⁸⁰⁾

장내 파생상품시장은 CME연계 KOSPI200선물 글로벌 시장의 개장으로 24시간 거래체제가 구축되었는데 이를 통한 거래량 증가도 예상해볼만 하다. 또한 최근 발행이 증가하고 있는 파생 결합 상품(ELS, ELW, DLS)의 헤지 수요로 KOSPI 200 옵션 등의 거래량이 증가 될 것으로 보여 진다.

<그림 2>⁸¹⁾



일반적으로 달러화 약세가 지속되면 투자이익 뿐 아니라 환차익의 유인도 존재할 수 있는데 최근 환율시장은 방향성을 전망할 만한 특별한 모멘텀이 없는

80) 금융감독원, 2010년 1분기 자산유동화증권 발행실적분석

81)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원/달러 환율

가운데 안전자산 선호라는 악재와 경상수지 흑자라는 국내 호재 등이 엇갈리면서 환율이 횡보하고 있어 금융상품 선호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생각된다. 변동성이 크지 않은 미달러 선물보다는 엔선물, 유로화 선물시장의 활성화가 예상된다.

.국내 장외 파생상품 표준화를 위한 중앙청산소(CCP)가 2012년께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자본시장 연구원에 따르면 장외파생상품 거래 규모는 IRS(이자율스왑)가 2672조원(2008년 거래기준), CDS(신용파생스왑)가 6조5000억원 정도로, 청산소 설립으로 거래의 신뢰성이 높아질 경우 초기 단계에 불과한 CDS거래도 빠른 성장이 예상 될 것으로 보여 질 것으로 전망했다.

Ⅲ. 결 론

이상에서 우리나라 금융시장과 상품에 대해 살펴보고 향후 금융시장과 상품의 변화를 전망해 보았다.

비교적 수익률에 민감한 단기금융 상품들은 수익률을 따라 선호가 변화 하고 자금이 이동하고 있다. 은행권은 CD발행 축소에 따른 수신 부족을 저축성 상품을 통해 보강할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은행간 저축성 예금을 유치하기 위한 경쟁이 예상된다. 또한 심화되는 부동산 경기 침체 대책으로 정부가 대출 규제 완화 및 다양한 정책을 내 놓고 있으나 은행 내에서 안전성 확보를 위해 대출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부동산 규제가 완화되더라도 조속한 시일 내에는 회복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보험 및 연금시장은 노령화와 베이비 붐 세대의 퇴직과 맞물려 그동안의 수익성과 안정성을 기반으로 퇴직관련 연금, 간병보험 등을 위주로 한 다양한 상품을 무차별 적으로 쏟아 수요를 만족시킬 것으로 보여 진다.

자본시장은 국 내,외 경제 상황, 정세, 규제 등 다양한 요소로부터 영향을 받아 매우 변동성이 크다. 주식시장의 경우 아직 남은 글로벌 위기의 여파나 불안한 국내 정세를 감안해 큰 폭 상승은 어려운 것으로 전망되며, 채권 시장은 기준 금리 상승 기대와 맞물려 혼조세 일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신용 위험의 부각으로 부진한 자산 유동화 시장은 추후 대상자산의 확대와 유동화에 대한 투자자의 관심이 증대, 주택금융시장의 확대 등에 따라 유동화증권 발행 니즈가 계속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어 유동화시장의 활성화가 지속 될 것으로 전망된다.

단기금융시장의 wrap-account나 CMA 등은 CP, CD, RP와 같은 타 단기 상품보다 소비자들이 쉽게 접근 할 수 있고 다양한 부가 서비스와 높은 수익률로 하반기 투자 대상으로 생각 해 볼 만 하다.

글로벌 경제 환경과 금융 시장 간 유기적 연관관계로 일반적인 상품보다는 파생상품 혹은 주가지수 등과 연계된 복합형 상품이 크게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지수 연계 상품인 ELS, ELW, ETF와 다양한 기초상품과 결합된 DLS가 대표적인 예인데 다양한 수익구조를 통한 상품설계가 가능하고 DLS의 경우에는 직접투자로 큰 수익을 얻기 어려울 때 다양한 기초상품에 투자함으로써 분산 투자의 효과도 누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복잡한 수익구조를 가질 수 있고 기초자산의 변동성이 심해 투자자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겠다.

향후 금융시장은 글로벌 금융위기의 잠재적 위험 속에서 안전자산을 선호하는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여 진다. 때문에 박스권 장세를 보이는 주식에 대한 직접투자 보다는 주식과 결합된 파생상품이나 채권 등에 보다 적극적으로 투자 할 것이며 수출의 증가나 파생결합상품 수요 증가에 따른 헤지를 위한 파생상품 거래량 증가를 예상해 볼 수 있다. 또한 세계 금리에 대한 불안감이 존재하고 있어 이자율 스왑(CRS) 거래가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본시장 통합법으로 인해 소비자들은 다양한 금융상품들을 쉽게 접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소비자 스스로가 금융 상품의 특성을 파악하고 선택해야 한다는 말이기도 하다. 단순히 수익률에 따라 개인의 투자 자금을 운용하기 보다는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고 자신의 투자목적, 기간, 안정성 등을 고려해 금융상품을 선택해야 할 것이다.

- 참고 문헌 -

- [1] 이요섭, 『금융시장의 이해』 (제 5판), 연암사, 2009
- [2] 강병호, 『금융시상론』 (개정판), 박영사, 2000 pp.31~32.
- [3] 허화·박종해, 『증권시장론』 (제3판), 삼영사, 2009
- [4] 이요섭, 『금융시장의 이해』 (제 5판), 연암사, 2009
- [5] 한국금융연구원, “최근 국내 단기금융시장의 특징 및 향후 발전과제”, 주간금융브리프(18-33호)
- [6] 이요섭, 『금융시장의 이해』 (제 5판), 연암사, 2009
- [7] 허화·박종해, 『증권시장론』 (제3판), 삼영사, 2009
- [8]~[14] 이요섭, 『금융시장의 이해』 (제 5판), 연암사, 2009
- [15] 금융투자교육원, 투자자산 운용사Ⅱ
- [16] 이요섭, 『금융시장의 이해』 (제 5판), 연암사, 2009
- [17] 보험경영연구회지음, 『보험론』, 문영사, 2002
- [18] 보험업협회, 변액보험의 이해와 관계
- [19] 금융투자교육원, 투자자산 운용사Ⅱ
- [20] 이요섭, 『금융시장의 이해』 (제 5판), 연암사, 2009
- [21] 허화·박종해, 『증권시장론』 (제3판), 삼영사, 2009
- [22] 이요섭, 『금융시장의 이해』 (제 5판), 연암사, 2009
- [23]~[27] 장희준. 파생상품의 이해와 투자전략, 이팩스코리아
- [28]~[29] 금융투자교육원, 투자자산 운용사Ⅱ
- [30] 이요섭, 『금융시장의 이해』 (제 5판), 연암사, 2009
- [31]~[32] KIS채권평가, KIS Weekly 6호, “통화스왑”
- [33] 금융연구원, 2009년 KIF 금융백서

[34] 금융감독원, “2010 1분기 ABS발행 실적 분석”

[35] 금융통계정보시스템. 파생상품편

-강태훈 저, 『금융선물옵션과 장외파생상품』, 시그마프레스, 2009

-은행업협회, 은행경영통계(09년판)

-KBP 한국채권평가, Fixed Income Weekly 제10-23호

-증권투자협회, “2010 4월호 파생상품 동향”

-KRS 한국거래소, “돈육선물+월간동향 5월”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

-자본시장연구원, “스왑시장·채권시장 및 외환시장의 연계성 분석”

-산은경제연구소, “원자재가격 동향 및 전망”

ABSTRACT

Study on Types and Characteristics of Korea's Financial Products

Kim, Hye Jin

Major in finance · insurance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SungShin Women's University

Supervised By Lee, Hyun Seok

We have so far examined Korea's financial markets and its products and we have projected certain possible changes in such areas. The short-term financial products, relatively delicate to the rate of return, go through changes in their preferences according to these exact rates of return and shifts in their capital.

Banks are believed to supplement the lack of receiving due to the decrease of CDs issued through their products. Banks are expected to severely compete at an unprecedented rate to attract savings deposits. Furthermore, in face of the worsening real estate market recession, the government is implementing diverse policies, including easing the loan

controls. However, it is expected that banks will decrease their loans to ensure more security and such measures will make it difficult for the financial markets to recover in a short period of time, despite the new regulations in the real estate market.

The insurance and pension markets, engaged with the aging phenomenon and the retirement of the baby boom generation, are expected to satisfy the demands, through the numerous and diverse products based on their profitability and security thus far. But the aging phenomenon will put and is putting severe pressure on the nation's Social Security funding.

The capital markets are liable to various changes under the influence of national and international economic situations and regulations among so many variables. The stock market is quite unlikely to increase on a monumental scale, considering the remaining global crisis and the insecure national situation. As for the bond market, mixed ends are expected based on the increase of base rates. The ABS market, moving at a snail's pace due to the recent emphasis of credibility risks, will see the needs for their issuances increase and subsequently become more activated, due to the expansion of interest of investors in the future underlying asset extend and securitization, and to the real estate financial market's trajectory moving upward.

The wrap-accounts and CMA from the short-term financial market are more easily approachable by consumers and with their diverse additional services and high interest, are likely to attract many investors.

Based on the mutual relation between the global economic environment

and the financial market, the combined products incorporating financial derivatives or stock price indexes are being noticed more. ELS, ELW and ETF are the main examples of such products, while DLS represents a typical product incorporating various underlying assets. Diverse product plans are possible through profit structures and in the case of DLS, the investor will be able to enjoy the advantages of a dispersed investment when it is difficult to obtain important profits from direct investment during cases of correction phases. However, a complicated profit composition is expected based on diverse products and the strong fluctuations of the underlying asset will require minute and continuous attention from the investor.

Financial markets are in the potential global financial crisis, It will seem to be a tendency to prefer the safe assets. So, Such as the derivatives products and bonds will be actively invested. Rather than direct investment in boxes range stocks. The increased in exports and demand for derivatives is likely to cause increasing in derivatives trading for hedge. Also anxiety about the global interest rates will increase the CRS trade.

The consolidation law on the capital market allows for consumers to have easy access to various financial products. Nevertheless, this also means that consumers will themselves have to underst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se products and make their choices accordingly. Their management will not merely be based on profitability but also on understanding the flow of the market and considering the objectives, time and security of their investment.